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  
을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은미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  
을 중심으로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은미

# 인 준 서

박은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영웅소설은 고전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화적 유형을 계승하고 있으며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소설 유형이다. 군담을 소재로 영웅이 등장하여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영웅소설의 서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민중의 승리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면서 대리만족을 제공하였다. 이후 소설의 상업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대중적인 소설로 발전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사랑 받는 장르가 되었다.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은 처음부터 영웅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영웅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 영웅으로 완성되기까지 영웅의 곁에서 끊임없는 도움을 제공하는 주변인을 우리는 ‘조력자’라 한다. 이들은 주인공을 보다 영웅답게 만들어주고 서사 진행에 긴밀하게 관계한다. 주인공의 영웅성을 깨우기도 하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등 작품마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서사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사건 진행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조력자가 서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력자라는 인물 유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못했고 세분화되어 연구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조력자를 대상으로 영웅 서사를 분석해보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조력자마다 특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력자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조력자가 크게

두 장면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인공을 구출하는 형태의 조력자와 둘째는 주인공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양육 형태의 조력자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조력자가 중심이 아니라 영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조력자에 초점을 맞춰 조력자를 분류하고자 한다. 1차 단계에서 조력자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천상계(초월적), 지상계(세속적), 중간계(중간적)로 분류하였다. 2차 단계에서는 각 조력자가 영웅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 작용하고 역할 진행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현시형, 매개형, 구출형, 후견형, 예언형의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조력자는 영웅 서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웅 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력자 연구를 통해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조력자라는 캐릭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영웅서사를 이해하는데 조력자를 중심으로 한 관점도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조력자, 초월적, 세속적, 중간적, 홍길동전, 유충렬전, 용문전, 현시, 예언, 구출, 매개, 후견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10
II. 영웅소설의 조력자 유형 분류	19
1. 초월적 조력자 유형	22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22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25
3)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26
2. 세속적 조력자 유형	29
1)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29
2)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31
3)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32
3. 중간적 조력자 유형	34
1)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34

Ⅲ.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 유형	-----	36
1. <홍길동전>의 조력자	-----	37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39
2. <유충렬전>의 조력자	-----	43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47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48
3)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	51
4)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	53
5)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	55
3. <용문전>의 조력자	-----	57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60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62
3)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	63
4)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	65
5)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	67
Ⅳ.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의미	-----	73
1. 서사 구성 방식의 다양화	-----	73
2. 영웅성 구현 방식의 다양화	-----	80

V. 결론 ----- 8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론

## 1. 연구 목적

영웅소설은 고전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화적 유형을 계승하고 있으며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소설 유형이다. 군담을 소재로 영웅이 등장하여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영웅소설의 서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민중이 위기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이 기저에 깔리면서 그것을 낭만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염원과 부합하면서 대리만족을 제공하였다. 이후 소설의 상업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대중적인 소설로 발전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사랑 받는 장르가 되었다.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은 처음부터 영웅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영웅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 영웅으로 완성되기까지 영웅의 곁에서 끊임없는 도움을 제공하는 주변인이 ‘조력자’이다. 이들은 주인공을 보다 영웅답게 만들어주고 서사 진행에 긴밀하게 관계한다. 주인공의 영웅성을 깨우기도 하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등 작품마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서사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사건 진행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조력자가 서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력자라는 인물 유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못했고 세분화되어 연구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

서는 조력자를 대상으로 영웅 서사를 분석해보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조력자마다 특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력자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조력자가 크게 두 장면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는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인공을 구출하는 형태의 조력자와 다른 하나는 주인공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양육 형태의 조력자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조력자가 중심이 아니라 영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조력자에 초점을 맞춰 조력자를 분류하고자 한다. 1차 단계에서 조력자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천상계(초월적), 지상계(세속적), 중간계(중간적)로 분류하였다. 2차 단계에서는 각 조력자가 영웅의 일생 어느 시점에서 작용하고 어떤 역할 진행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현시형, 매개형, 구출형, 후견형, 예언형의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조력자는 영웅 서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웅 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력자 연구를 통해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다양한 성격의 조력자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영웅서사를 이해하는데 조력자를 중심으로 한 관점도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영웅소설은 고전소설 연구뿐만이 아니라 주변 장르인 신화와도 중요한

유기적 연관성을 갖게 하는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웅소설은 많은 고전산문연구자에 의해 주목 받아 왔다. 먼저 연구의 시초는 김태준<sup>1)</sup>이 조선의 군담류가 <인귀전>과 같은 원형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언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김기동<sup>2)</sup>이 ‘유충렬전, 장국진전, 이대봉전, 유문성전, 조용전, 장백전, 현수문전, 황장군전, 김진옥전, 홍계월전, 여장군전’을 묶는 개념으로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영웅소설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연구사 또한 매우 방대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영웅소설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고와 관련 있는 조력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영웅소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웅소설의 성립 시기 및 작품의 선후관계에 관한 연구, 둘째 영웅소설의 유형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작품의 성립 시기 및 작품의 선후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조동일은 영웅소설이 초기소설의 일원론적 주기론의 구조를 버리고 이원론적 주기론의 구조를 택하게 된 것과 <홍길동전>이 나타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색을 거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고찰을 통하여 영웅의 성립시기를 분류하였다.<sup>3)</sup>

서대석은 1794년 <상서기문>이 씌여지기 이전에 이미 보급되어 많은

1)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10~111쪽.

2)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반도출판사, 1974. 237쪽.

3) 제1기는 <홍길동전> 이후의 영웅 소설이 여러 형태로 모색되던 모색기로 <금방울전>·<양풍전>·<숙향전>·<소대성전>·<구운몽>, 제2기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이 확립된 확립기로 <조용전>·<유충렬전>·<현수문전>·<황운전>·<이대봉전>, 제3기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이 해체되기 시작한 해체기로 <장풍운전>·<장경전>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해』, 지식산업사, 2012. 444쪽.)

독자를 확보했던 작품을 제1기로, 방각본으로 출간된 작품들을 제2기로, 구활자본으로 소설이 출판되면서 나타난 작품들을 제3기로 구분하였다.<sup>4)</sup>

임성래는 영웅소설의 성립시기를 <홍길동전>을 제외하고 <구운몽>과 <옥루몽>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웅소설에서 <설인귀정동>의 요소가 보이나 이것은 우리나라 영웅소설이 먼저 있었고 이후 <설인귀정동>이 우리말로 변안되면서 우리나라 영웅소설과 비슷한 양상을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였다. 따라서 영웅소설은 <설인귀전>의 수입 이전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운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구운몽>이 1687년~168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소대성전>도 17세기 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sup>5)</sup>

다음은 영웅소설의 유형에 관한 연구이다.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는 먼저 박일용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박일용은 영웅소설의 각 유형적 특성을 개괄하여 그 관계를 살핌으로서 각각 어떠한 문학적·사회적 조건에 대응되는 것인가를 추정하여 근대로의 이행기에 생산·수용된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영웅소설의 유형은 소설 담당층

---

4) 제1기는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 제2기는 <조용전>·<금방울전>·<유충렬전>·<이대봉전>·<현수문전>·<황운전>, 제3기는 <홍계월전>·<김진옥전>·<장국진전>·<곽해룡전>·<유문성전>·<사각전>·<권익중전>·<금낭이산>·<양주봉전>·<어룡전>·<여장군전>·<여중호걸>·<임호은전>을 들었다.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26쪽.)

5) 16C 말에서 17C 초까지를 초기소설로 <홍길동전>을, 18C 초 작품으로 <소대성전>·<장백전>·<황운전>·<이대봉전>·<양풍운전>·<유충렬전>을, 18C 중엽에서 18C 말엽의 작품으로 <장풍운전>·<장경전>·<용문전>·<현수문전>·<정수정전>·<금령전>·<조용전>·<김홍전>을, 19C 초에서 19C 중엽까지의 작품으로 <옥주호연>·<백학선전>·<쌍주기연>을 들었다.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124쪽.)

의 정신사적 변모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웅소설이 사회 변동 현상인 농업 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도시의 생성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김재용은 영웅소설의 서사 진행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파악하고 A유형과 B유형으로 분류하여 복수형 영웅소설과 애정형 영웅소설로 나눴다. 이중 복수형 영웅소설은 주몽 신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애정형 영웅소설은 온달전과 비교함으로써 주몽신화와 온달전이 영웅소설의 두 구조를 결정지어 서사 진행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추진축으로 보았다. 또한 두 설화 전통은 소설의 순차적 구조뿐만 아니라 영웅의 성격까지도 원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보았다.<sup>7)</sup>

서대석은 군담소설이 조선조 후기에 출현하여 개화기 이후까지 소설계

6) 영웅소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첫째는 현실적 권력 체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최고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권력과 부귀공명을 획득해 나가는 가장 전형적인 계열이라고 보았다. 둘째는 현실적 지배 체제를 부인하고 특권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현실적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배 권력과 대결하는 계열이라고 보았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첫째는 소설 속에서 지배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부귀공명을 획득해 나가는 계열 중의 하나로 대적 퇴치 민담 모티프가 소설 구성에 축을 이루고 있는 영웅소설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때 <김원전>과 <금방울전>이 이에 속한다. 둘째 자신의 지향 가치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유형과 변별적 특징을 드러내는 <장풍운전>, <장경전>, <소대성전> 등 <장풍운전> 유형이다. 셋째 <장풍운전> 유형과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유충렬전>, <이대봉전>, <조웅전> 등 <유충렬전> 유형이다. 넷째 주인공이 지배 질서에 도전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 문제를 가지고 지배 질서와 대결해 나가는 유형의 작품으로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이 있다. (박일용, 「영웅소설 유형 변이의 사회적 의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학회, 1983. 189~200쪽.)

7) A유형은 복수형 영웅소설로 <조웅전>, <유충렬전>, <곽해룡전> 등이며 B유형은 애정형 영웅소설로 <장경전>, <장풍운전>, <신유복전>, <현수문전>, <김진옥전>, <음양옥지환> 등이 있다. 위기 혹은 고난의 이유가 복수형 영웅소설은 간신의 모해인 반면 애정형 영웅소설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이산이다. 또한 구조자의 성격도 복수형 영웅소설은 초자연적인데 반해 애정형 영웅소설은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수학 과정에서 복수형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보검 등 주구를 획득하는 반면 애정형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또한 복수형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외적의 퇴치를 복수를 위한 전초전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애정형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외적 퇴치 그 자체가 목적을 이룬다. (김재용, 「영웅소설의 두 주류와 그 원천」, 『한국언어문학』 Vol.22, 한국언어학회, 1983. 169~184쪽.)

를 흥미했던 소설로서 작품의 종류도 많고 창작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작품에 따라 반영된 의식도 다양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층이 공감한 요인들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대성전> 유형, <유충렬전> 유형, <장백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8)</sup>

임성래는 영웅소설의 줄거리 전개방식에 따라 체제 개혁형 영웅소설, 애정 성취형 영웅소설, 능력본위형 영웅소설, 인륜수호형 영웅소설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영웅소설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각 작품의 사상과 사회와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sup>9)</sup>

다음으로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조력자에 대한 연구이다.

조동일은 조력자에 대하여 <홍길동전>과 <소대성전>을 비교하면서 노승과 소대성의 관계를 살폈다. <소대성전>에는 다른 영웅소설과 다른 중

8) <소대성전> 유형은 <장풍운전>, <금방울전>, <현수문전>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은 주인공의 수난이 가족원의 박해로 야기되며 주인공의 개인적 박해자와 국가의 적대세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때 임병 양난 이후 현실사회의 양상과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유충렬전> 유형으로 <조웅전>, <유충렬전>, <황운전>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정치적 적대세력의 탄압으로 주인공은 수난을 겪으며 주인공의 적대자는 왕권의 도전자가 되어 주인공과 대결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유형은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계층이 향유했던 작품으로 특히 몰락층의 정치의식이 투영된 소설이라고 보았다. 셋째 <장백전>유형으로 <장백전>과 <유문성전>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은 주인공이 창업하는 새 임금을 도와서 구왕권을 타도하는 활약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역성 혁명의지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서대석, 앞의 책, 85, 112, 131쪽.)

9) 먼저 체제 개혁형 영웅소설로서 <옥주호연>, <장백전>, <홍길동전>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체제개혁이 일으키는데 이 점에서 신화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건설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둘째 애정 성취형 영웅소설로서 <백학선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황운전>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혼사장애와 입공의 내용이 줄거리 전개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혼사장애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능력본위형 영웅소설로서 <금령전>, <쌍주기연>, <소대성전>, <장경전>, <장풍운전>, <현수문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은 비범한 주인공이 가난으로 고난을 겪다가 후일 비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인륜수호형 영웅소설로서 <유충렬전>, <양풍전>, <조웅전>, <김홍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부친의 원수를 아들이 대신 갚아준다는 인륜수호이며 당시 북벌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임성래, 앞의 책, 163~165쪽.)

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승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노승은 지상에 내려온 부처이면서도 소대성에게 도술을 가르치지 않으며 다만 환경을 조성해주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역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상계의 인간을 천상계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바로 노승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용전>에서는 월경대사가 조용의 구출·양육자인데 그는 구출·양육자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조용을 데리고 글도 의논하고 신통한 술법도 가르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용은 다시 철관도사를 찾아가서 수학하게 되는데 이때 철관도사는 천상계의 입장에서 조용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월경도사와 같으나 세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준다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sup>10)</sup>

서대석은 창작 군담소설의 서사유형을 살피면서 서사 단락을 중심으로 작품들 사이의 친소 관계 및 각 단락이 가진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중 주인공에게 스승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도승은 주인공의 구출자인 동시에 스승이고 후원자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군담소설에서 주인공은 도승에게 신비한 도술과 무예를 배우는데 도승의 존재 여부는 전쟁의 성격이나 주인공의 활약상과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도승은 주인공의 출생시부터 관여하는 존재로 설정되거나 주인공의 앞일을 미리 알고 인도하는 존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승의 기능은 후대 작품일수록 강화되고 주인공의 능력 또한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sup>11)</sup>

10) 조동일, 앞의 책.

11) 스승 없이 독학한 주인공은 장풍운, 장애황, 장해룡, 장경인데 이들은 출장 입상의 공훈을 세우기는 하나 전쟁터에서 신기한 도술을 행하지는 않으며 지략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뿐이라고 하였다. 반면 도승에게 수학한 주인공은 소대성, 장백, 조용, 유충렬, 이대봉, 현수문, 황운, 김진옥, 홍계월, 장국진, 곽해룡, 유문성 등으로 영웅소설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들

김재용은 영웅소설의 두 주류를 파악하면서 영웅소설에서 영웅은 그 원향을 천상에 두고 있으며 천상의 금기를 파기한 죄로 지상에 적강하여 명문거족의 만득자로 탄생한다고 하였다. 이때 영웅의 탄생에는 네 인물 유형이 관련되어 있는데 영웅과 영웅을 적강시키는 천상의 주재자, 버림 받은 영웅을 구원하는 관음보살, 그리고 영웅의 부모라고 하였다. 구조자들은 위기에 처한 영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선에서 그들의 임무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웅의 스승은 원조자라고 하였다. 원조자는 지인지감이 있는 인물로 영웅을 수탁시키며, 전쟁에 필요한 갑주나 보검 혹은 용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조자는 영웅의 전생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영웅의 미래를 예언하고 전쟁에서 영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혹은 꿈에 나타나 장차 영웅이 해야 할 일을 알린다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위기를 해소시켜 주는 구조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이때 김재용은 조력자라는 용어 대신 ‘구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2)</sup>

안기수는 영웅소설에서 초월적 구원자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사, 선동, 불교에서의 승려, 그리고 전대에 뛰어난 인물들의 혼령 등으로 평범한 일상인과는 구별되는 인물들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초월적 구원자는 한결같이 주인공의 능력을 배양시켜주며 결말에서 주인공의 지향가치를 실현해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원자의 등장은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이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전해주는 변신의 주체이며, 신화와는 달리 생래적 능력을 상실한 주인공의 후천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수동적인 주체로서 작품 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즉 주인공의 사상과 행

---

의 활약은 초인간적인 도술에 의거 한다고 하였다. (서대석, 앞의 책. 68쪽.)  
 12) 김재용, 앞의 책.

동의 양식까지 변신시켜 버리는 창조자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질서를 주인공을 통해 지상에서 실현시켜 주는 천의의 인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원자는 신과 다름없으며 초월자가 추구한 이념은 곧 당대인의 이상향인 것으로 인식한 욕망과 상통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전현직 양반층 및 몰락양반층은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욕망 성취 및 계속적으로 영광된 가문의 지속과 번영을 피하고자 하는 양반들로 이미 몰락해 버린 가문의 지속과 번영을 피하고자 하는 양반들이거나 이미 몰락해 버린 가문을 주인공을 통해 회복하여 권토중래를 회구하고자 하는 인물들이라고 하였다. 작품에서 이들은 주인공의 초기 고난에서 지인지감으로 도와주는 인물들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13)</sup>

류준경은 영웅소설의 대표적인 조력자로 전직 승상과 노승이 있다고 하였다. 전직 승상은 유리결식하는 주인공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사위를 삼는 인물로 지인지감으로 주인공의 기상을 알아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승은 주인공에게 병법과 무술 등을 전수하여 뛰어난 무력을 지닌 인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때 전직 승상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는 고난에 방황하는 주인공에게 결연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지향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향 가치를 지닌 의지적 인물로 변모되어 새로운 서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또 노승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인 무력을 부여하여 주인공이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모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웅소설에서의 조력자는 주인공에게 의지와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이후 서사 전개가 가능하게 하는 서사적 추동력을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영웅소설

---

13)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6.

서사의 기본 두 축인 결연담과 군담이 형성된다고 보았다.<sup>14)</sup>

지금까지 영웅소설의 성립 시기 및 작품의 선후관계, 영웅소설의 유형,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인물 유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주인공에 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간혹 조력자를 언급하더라도 주인공처럼 인물 유형을 세분화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관심을 보일 뿐 정치한 분석 및 의미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영웅소설에서의 조력자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한 작품에서도 수많은 조력자가 나오고 이들 조력자는 작품 곳곳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의 인물유형을 분류한 것처럼 조력자의 인물 유형을 세분화하여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영웅소설은 영웅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영웅만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아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영웅의 이야기라는 서사가 개연성을 띠고 다채롭게 구성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웅소설 속 영웅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력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력자의 존재성과 역할의 특징을 살펴 또 다른 영웅소설의 독법과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

14) 류준경, 「한국 고전소설의 작품 구성원리」,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6.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영웅소설 유형에 포함되면서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이 모두 존재하고 이본수가 많은 작품을 선택했다. 유통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곧 다양한 향유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이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인공인 영웅의 능력치와 행동반경 범위이다. 본고는 다른 무엇보다 조력자의 변별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조력자의 기능은 그만큼 주인공인 영웅의 능력이나 행동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인공인 영웅의 능력이 탁월하고 부과된 임무가 막중하여 행동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조력자의 개입도 많아지고 역할 기능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력자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조력자의 개입이 많아질 수 있는 주인공인 영웅의 능력치가 높고 행동반경이 넓은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표는 유통 형태와 이본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작품명	필사본		판각본	활자본	경판본	완판본	안성본
	국문본	한문본					
사각전	○						
곽해룡전	○			○			
권익중전	○			○			
금낭이산	○			○			
김진옥전	○			○			
김홍전	○				○		
양주봉전	○			○			
유문성전	○			○			

임호은전	○			○			
장국진전	○			○			
백학선전	○			○	○		
어룡전	○			○		○	
장백전	○			○	○		
정수정전	○			○	○		
양풍(운)전	○			○	○		○
장경전	○			○	○	○	
현수문전	○			○	○	○	
황운전	○	○	○	○	○		
이대봉전	○	○	○	○		○	
용문전	○		○	○	○	○	
장풍운전	○		○	○	○	○	
조웅전	○		○	○	○	○	○
소대성전	○	○	○	○	○	○	○
유충렬전	○	○	○	○	○	○	○
홍길동전	○	○	○	○	○	○	○

[표1] 영웅소설의 유통형태<sup>15)</sup>

위 표를 살펴보면 먼저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품 이면서 이본수가 가장 많은 작품으로는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소대 성전>이 있다. 이 세 작품은 필사본, 판각본, 활자본뿐만 아니라 경판 본, 완판본, 안성본까지 모두 유통되었던 작품들이다. 따라서 가장 인기 가 있는 작품이자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조웅전> · <장풍운전> · <용문전>도 안성본과 한문 필사본만

15)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비교 작품을 선정할 기준은 기존의 고전 산문 연구자들이 주로 다뤘던 소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본고에서는 남성 영웅소설이면서 군담이 중심인 영웅소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여성영웅소설은 제외하였다.

없을 뿐 다른 작품에 비해 다양한 유통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유통 형태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작품으로는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소대성전> · <조웅전> · <장풍운전> · <용문전> 등 여섯 작품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인공인 영웅의 능력치와 행동반경 범위이다. 이 기준에 따라 선택된 작품은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이다. <홍길동전>은 여섯 작품 중 유통 형태와 이본 수가 가장 많은 작품 중 하나에 속하며 신화와의 연관성이 높은 작품이다. 특히 홍길동이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특별한 조력자의 도움 없이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웅소설과 변별되는 작품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용문전>은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완전히 소거된 채 지상계의 힘으로만 영웅의 기지를 발휘하는 작품이다. 다른 작품의 주인공에 비하여 <용문전>은 용문의 신이한 능력이 철저하게 제거되었고 조력자 또한 이에 맞게 오로지 지상계의 힘에 의해 조력하게 된다. 특히 신이한 능력이 없는 주인공에게 천상계의 힘이 전달되었을 때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작품이다.<sup>16)</sup> 이에 따라 지상계의 힘으로써 사건이 해결되는 <용문전>이 천상계의 힘으로써 사건이 해결되는 <홍길동전>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작품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충렬전>이다. 유충렬은 신이한 능력은 있되 홍길동처럼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반드시 조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웅으로 등장한다. 영웅의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유충렬전> 외에도 <소대성전> · <조웅전> · <장풍운전> 이 있다. 그중 유통형태

---

16) 용문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다른 영웅소설들처럼 신물이 전달되지만 용문은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물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장기계로 활용될 뿐이다. 이 부분은 3장 <용문전>에서 자세히 살펴도록 하겠다.

와 이본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작품은 <유충렬전>과 <소대성전>이다. 이 두 작품을 다시 주인공과 조력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유충렬전>의 영웅이 철저히 천상계의 지배를 받으며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홍길동전>과 차별화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주인공인 영웅이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적 의지로 행동하는 작품인 <홍길동전>, 주인공인 영웅의 신이한 능력은 모두 소거되고 지상계의 힘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작품인 <용문전>, 주인공인 영웅이 신이한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능동적이지 못하고 천상계의 지배를 받아 수동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인 <유충렬전>을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비교에 적합한 판본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먼저 <홍길동전>의 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sup>17)</sup>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출판되거나 필사된 것으로 현재 <홍길동전>은 판각본과 필사본 그리고 신활자본 등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선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판각본은 모두 한글본으로 지금까지 총 7종이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필사본은 5종<sup>18)</sup>이 소개되었다. 또한 내용상으로 경판계열, 완판계열, 필사본계열로 나눌 수 있다. 경판에 속하는 6종의 판각본의 줄거리나 자구는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는 대목까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19장본과 24장본은 그 이

17) 비록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8) 한글본으로 19장본(박성철서점), 21장본(송동신간), 23장본(어청교신간), 23장본(안성동문이신판), 24장본(한남서림), 30장본(치동신간), 36장본(완판)이 전하며 필사본으로는 30장본(위도왕전), 89장본, 86장본, 52장본, 21장본이 전한다. (조희웅, 앞의 책. 845~857쪽.)

후의 줄거리가 다르다. 특히 19장본과 24장본의 후반부는 축약되었음이 명백하다. 경관계열 가운데 판각본 30장본이 가장 내용이 풍부하지만 현재 1장이 낙장되었다. 완관계열에 속하는 본은 완판 36장본과 필사본 52장본이다. 이 두 본은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52장본은 오자와 낙자가 많으므로 36장본이 선본이다. 필사본계열에는 한문 30장본, 필사본 89장본, 필사본 86장본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완판 36장본과 비슷하나 경관계열이나 완관계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삽화가 많다. 필사본 계열은 경관계열이나 완관계열에 비해 판본 수가 많아 선본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sup>19)</sup> 본고에서는 필사본을 제외하고 경판 계열과 완관계열을 비교하여 판본을 정하였다. 이때 경판 계열로는 학계에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24장본과 내용이 가장 풍부한 30장본을 선정하였고 완관계열로는 선본이라고 알려진 36장본으로 선정 기준을 좁혔다. 먼저 경판 계열인 24장본과 30장본을 비교했을 때 24장본의 제20장까지와 30장본의 제18장까지는 내용과 자구가 거의 유사하나 제19장 이후부터는 내용이 다르다. 또한 유일한 완판인 36장본을 경판인 30장본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24장본과는 확연하게 내용이 달라진다. 즉 완판 36장본은 경판 24장의 내용과 제20장까지는 유사하나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합한 판본은 30장본이라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홍길동전> 경판 30장본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sup>20)</sup>

<유충렬전>은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50여 가지의 이본

19) 이윤석, 「<홍길동전> 이본의 성격에 관한 고찰」, 『국문학연구』 vol.12,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9. 58쪽.

20) <홍길동전>은 경판 24장본과 경판 30장본, 완판 36장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있다. <유충렬전>의 방각본은 모두 완판으로 경판이나 안성판은 없다. 5종의 판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권 39장, 하권 47장으로 상하 86장본이 기본적인 형태이다. 내용은 서로 완전히 같으며 그 중 서강대의 임인본(壬寅本)을 최고본이라고 본다.<sup>21)</sup>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합한 판본은 기본적인 형태로 알려진 완판 86장본이라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완판 86장본을 분석 텍스트로 정했다. <용문전>은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sup>22)</sup> 이중 경판계는 경판 36장본을 축약하여 경판 25장본이 형성되었고 다시 경판 25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신구서림본과 세창서관본이 간행되었다. 완판계는 완판 38장본을 등사하여 필사본이 형성되었다. 이들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경판 24장본	경판 30장본	완판 36장본
등장인물	인형, 초관	인형, 초관	길형, 초당
초관에 대한 처분	쫓겨남	쫓겨남	알 수 없음
왕에게 쌀 요구	1천 석	3천 석	3천 석
부인 수	2명	2명	3명
율도국 왕 항복 방식	투항	두려움에 자살	분에 못이겨 자살
홍길동의 최후	병에 걸려 사망	백발노인에 의해 사라짐	갑자기 사라짐
태자의 왕위 즉위	홍길동 사망 후	홍길동 사라진 후	홍길동 생전
홍판서 부인 사망 시점	홍길동 생전	홍길동 생전	홍길동 사라진 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판본 모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완판 36장본의 내용이 경판본에 비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고 좀 더 상술되어 있다. 또한 결말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경판 24장본과 경판 30장본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완판 36장본도 결말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상의 차이나 조력자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세 가지 판본 중 경판 30장본이 두 판본을 모두 아우르는 작품이라고 판단하여 경판 30장본을 최선본으로 선택하였다.

21) 조희웅, 앞의 책. 479~495쪽.

22) 임성래는 <용문전>의 성립 시기를 18C 중엽~말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성래, 앞의 책. 84쪽.) 서경희는 서지 비교를 통해 19C 중엽 이전에 나타나 20세기 초까지 필사본과 방각본, 활자본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경판계와 완판계로 각기 전승되어 나갔다고 보았다. 필사본으로는 박순호소장 33장본·25장본·37장본과 울곡도서관소장 48장본 a와 b가 있다. 방각본으로는 경판 36장본·25장본과 완판 38장본이 있다. 구활자본으로는 신구서림 43면, 신명서림 32면, 세창서관 36면이 있다. 이중 완판 38장본을 비롯하여 필사본 박순호소장 33장본·25장본·37장본과 울곡도서관소장 48장본 a와 b, 구활자본 신명서림본은 모두 완판계열에 속하며, 경판 36장본·25장본과 구활자본인 신구서림본, 세창서관본은 경판계열에 속한다. (서경희, 「<용문전>의 서지와 유통」, 『이화어문논집』 vol.16, 이화어문학회, 1998. 94~97쪽, 106쪽, 107쪽.)

경관본이 간행된 뒤에 완판본<sup>23)</sup>이 등장하게 된다. 경관본은 <소대성전>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작품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관본인 <소대성전>에서 이미 죽은 소대성을 다시 살려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모순점을 안게 되었다. 이후 완판본에서 이러한 모순점을 고쳐서 완판본 <소대성전>과 <용문전>을 성립시켰고 두 책이 합책되어 유통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문만의 독자적인 이야기 구성은 삭제되고 소대성과의 연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었다.<sup>24)</sup> 이는 독자의 취향과 당대 가치관의 변화가 그대로 작품 속에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관계열보다는 완판계열이 독자의 취향과 가치관의 변화가 더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용문전> 완판 38장본을 분석 텍스트로 정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유충렬전> 완판 86장본, <용문전> 완판 38장본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2장에서는 신화와 영웅소설의 유기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신화가 영웅소설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조력자의 유

23) 이원수는 경관본과 완판본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가치관의 차이이다. 경관본에는 용문의 새 가치관과 용혼의 전통적 가치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이 아직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이나 완판본에서는 용혼마저 용문의 새 가치관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의 지지 기반이 거의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둘째는 작자의식의 차이이다. 경관본의 작자는 가치관의 전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과거 사회로의 복귀를 피함으로써 시대 역행적인 보수적 의식 체계를 보이는 반면, 완판본의 작자는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새 가치관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진취적 의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는 시·공간적 배경 및 독자층의 차이이다. 완판본은 후대본으로 가치관의 전환이 보다 심화된 시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경관본과 달리 전통적 가치관이 과감히 거부되고 새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두 판본의 배경이 된 서울과 전주의 지역적 특성과 독자층의 차이가 이를 더 심화시켰다고 하였다. (이원수, 「<용문전>의 일고찰-조선후기 가치관의 전환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vol.16, 국어교육학회, 1984. 146~147쪽.)

24) 서경희, 앞의 책. 110쪽.

형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본고  
가 텍스트로 정한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을 통해 유형별 조  
력자가 형상화된 실재를 살피고 작품마다 다양한 유형의 조력자가 등장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조력자의 다  
양한 성격에 따라 작품의 서사 구성은 물론 영웅성의 구현방식 또한 다  
양화 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여 영웅소설에서 조력자가 갖는 위치 및 의  
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조력자 유형을 설정할 때는 조동일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  
조’<sup>25)</sup>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주인공인 영  
웅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고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탁월한 능력’과  
‘자라서 위기’는 주인공인 영웅의 독자적 서사로서 조력자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영웅 서  
사 각 단계마다 조력자의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조력자 유  
형에 따라 작품마다 각기 다른 서사 진행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렇듯 조력자의 유형 또한 주인공인 영웅의 유형 못지않게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이 부분을 간과해 왔다. 결국 주인공  
영웅을 위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조력자의 다양한 성격을 단순  
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25) 조동일의 영웅의 일대기는 다음과 같다.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고귀한 혈통) ② 잉태  
나 출생이 비정상적이었다(비정상적 출생). ③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탁월한 능  
력). ④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기아와 죽음). ⑤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  
비에서 벗어났다(죽음의 극복).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자라서 위기). ⑦ 위기를 투쟁적으  
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투쟁에서 승리).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  
문화』 vol.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9쪽, 180쪽.)

인지하고 영웅소설 속 조력자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영웅소설의 조력자 유형 분류

영웅소설은 신화와의 유기적 연관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동명왕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영웅소설로 수용되었다는 견해에 별다른 이견도 없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초기 영웅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에 대입시켜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sup>26)</sup>

<동명왕신화>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물론 조력자 유형 또한 영웅소설의 모태가 되었다. <동명왕신화>에서 주몽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은 천부지모형의 가계에 있다. 즉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와 물의신 하백의 딸 유화가 결합함으로써 천부지모라는 완벽한 신화적 가계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주몽은 그 신화적 능력을 증명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난생이라는 설정과 왼쪽 겨드랑이 출생이라는 설정<sup>27)</sup>은 주

26) 임치균은 <동명왕신화>·<홍길동전>·영웅소설에 보이는 주인공의 기본 행동 구조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성을 띠고 있으며 <홍길동전>의 기본 골격이 <동명왕신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 골격 속에 소설화에 따른 내용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임치균, 「영웅소설 연구 - 탄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59-61쪽)

서대석은 주몽이 동부여에서 금와왕 및 왕자 대소 등과 대결한 것은 길동의 가정적 시련과 비교되고 주몽이 동부여를 이탈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송양과 대결한 것은 길동이 가정을 이탈한 뒤의 활약과 상통한다. 유화가 금와왕의 별실이였다면 춘섬과 같은 위치가 될 수 있고 주몽의 시련과 길동의 시련은 생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성격을 가진다. 주몽은 처음부터 창업의 용지가 있었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홍길동의 경우와 동일하며 주몽이 송양을 굴복시킨 후 모친인 유화를 국모신으로 모신 것도 길동이 울도국의 왕이 된 후 춘섬을 대비로 모신 것과 상통한다. 또한 주인공의 활동 공간의 확대와 주인공의 위치 상승이 비례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더욱 확인되는데 주몽의 대결과 투쟁은 두 단계로 나뉘지며 각 단계는 완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 또한 길동과 상통하는 특징을 가진다. (서대석, 앞의 책, 260쪽.)

27) 일반적으로 알로 태어난다는 것은 출산의 불결함이나 부정스러움을 소거시킨 정갈한 출산의 양식

몽의 신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신화적 능력의 증명 형태는 이후 영웅소설에서 태몽과 자연적 출생방법<sup>28)</sup>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신화적 사고방식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주인공의 신성한 가계는 태몽이라는 형태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난생이나 왼쪽 겨드랑이 출생이라는 비정상적인 설정은 자연적 출생 방법이라는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하여 전승되었다.

본고에서는 조력자의 의미를 단순히 주인공인 영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파악하기보다 진정한 영웅으로써 성장하기 까지 그 존재성을 암시하거나 인지하고 획득하는데 기여한 모든 계기와 상황까지를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조력자로서 가장 먼저 부모를 들 수 있다. 부모가 천부지모형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조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난생과 왼쪽 겨드랑이 출생 또한 조력에 해당하며 난생 후 버려진 알을 보호하는 자연물 또한 조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력은 영웅소설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태몽이라는 형태로 변이되어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유화는 부모로서의 조력뿐만이 아니라 농경생활의 뿌리가 되는 씨앗을 주몽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국시 농업사회의 기초를 마

---

이다. 또한 주몽이 알로 태어날 때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왼쪽은 비일상적인 방향이자 신성성을 지니는 방향이다. 이처럼 난생과 왼쪽 겨드랑이 출생은 주몽의 신성성을 더해주는 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임재해, 『민족 신화의 건국 영웅들』, 천재교육, 1995. 111쪽.)

28) 신화는 영웅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임 출생하며 자발적인 영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의 출생은 신화에서처럼 비정상적인 회임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부모가 존재하는 자연적인 출생방법에 의해 태어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다만 주인공의 영웅성은 출생 전 부모의 태몽을 통해 영웅성을 인식시켜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영웅성은 태몽의 방법과 종류, 성격에 따라 확인된다. 이처럼 영웅소설은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부모의 신성성을 통한 영웅성 표출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의식 중의 하나인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태몽으로 형상화하여 전대의 신비한 모습을 꿈속으로 끌어들임으로서 독자들에게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안기수, 위의 책. 289쪽.)

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모신으로서의 능력을 주몽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이후 영웅소설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주인공에게 나눠주고 신물을 전달하는 형태로 변이되어 전승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분노의 조력이 크다. 부분노는 주몽에게 고각을 가져다주는 인물로서 고각은 곧 하늘에서 부여하는 왕권이나 다름없이 여겨지는 것이므로 왕권의 위용을 담보하는 상징물<sup>29)</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각은 이후 영웅소설에서 신물의 형태로 변이되어 나타나며 부분노는 초월적 조력자의 역할로 변이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신화는 영웅소설에 구조뿐만 아니라 조력자의 인물 유형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물론 영웅소설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성성은 사라지고 대신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함으로써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그 원형이 신화에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신화와 영웅소설의 유기적 연관성을 <동명왕신화>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영웅소설에 드러난 조력자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조력자 유형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조력자가 영웅에게 미치는 힘의 근원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즉 조력자가 천상(하늘)의 논리와 지상(땅)의 논리 중 어느 것에 입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초월적 조력자, 세속적 조력자, 중간적 조력자 유형으로 대별된다. 조력자 유형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조력자가 주인공의 영웅성을 밝혀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현시형, 매개형, 구출형, 후견형, 예언형으로 구별된다. 다만 조력자의 근원이 달라짐에 따라 하위 역할·방법의 종류가 동일하게 구현되지는 않는다.

---

29) 임재해, 앞의 책. 139쪽.

## 1. 초월적 조력자 유형

초월적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계에 있으며 천상계의 힘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영웅성을 확립시키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도사, 승려, 노승, 선녀, 신령, 부처, 선관 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초월적 조력자의 역할은 주인공과 천상계의 연관성을 증명하여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을 증명하거나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인공의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들 조력자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로 세분화할 수 있다.

###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의 신이한 잠재 능력과 고귀한 혈통을 증명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인간의 형상은 물론 자연물의 형상으로도 등장한다. 먼저 자연물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청룡이나 봉황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홍길동전> · <황운전> · <금령전> · <이대봉전> 등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경우는 선관이나 선녀, 옥황상제, 부처, 용왕(아들), 왕 등이며 <김홍전> · <장풍운전> · <쌍주호연> · <소대성전> · <장경전> · <옥주호연> · <유충렬전> · <용문전>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인 <홍길동전>에서는 청룡이, <유충렬전>에서는 선관, <용문전>에서는 신관이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이들은 모두 주인공의 전생에 해당하는데 과연 조력자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록 전생의 본인이 등장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별개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즉 <구운몽>에서 양소유와 성진은 한 사람이면서 신선계와 인간계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별개의 인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러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인 출생’ 부분에서 나타나며 이때 태몽<sup>30)</sup>이라는 장치가 활용된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는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영웅임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주인공에게 잠재된 신이한 능력을 증명해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 중 후자는 작품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즉 혈통을 증명하는 역할은 영웅소설이라는 특성에 맞게 주인공의 영웅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작품마다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잠재된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은 작품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군담 장면이다. 즉 주인공이 군담에서 천상계의 힘인 신이한 능력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면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했

---

30) 임치균은 태몽이란 영웅소설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아울러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부여하는 직접 인자라고 하였다. 즉 태몽에서 천상적 이미지가 주인공에게 부여되고 이러한 이미지가 주인공을 영웅이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영웅에게 필수적인 ‘고귀한 혈통’은 태몽에서 주인공이 상계계 득죄하여 내침을 당했다는 언급을 통해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임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몽을 통해 천상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귀한 혈통을 확보함으로써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임치균, 앞의 책. 36쪽, 51쪽)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주인공인 영웅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했다면 그 능력은 반드시 군담에서 도술 대결 장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계의 힘인 지혜를 발휘하여 승리를 쟁취했다면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신이한 능력을 획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군담에서 도술 대결은 삭제되고 대신 계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충렬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선관이 유충렬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유충렬은 군담에서 도술 대결을 할 수 있었고 신이한 능력을 통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문전>이나 <옥주호연>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두 번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담에서 도술 대결이 제거되고 대신 계략을 세워 적을 물리치는 대목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즉 <유충렬전>에서는 신이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용문전>이나 <옥주호연>에서는 주인공이 그러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이 삭제된 것이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주로 작품 서두인 영웅의 잉태와 출생 부분에서 등장하므로 서사 구조상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이후 서사 진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암시해주는 복선역할이 되기도 한다.

##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존재이자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천상의 목소리, 선녀, 선관, 노인 등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인 출생’ 부분과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부분에서 등장한다.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는 주인공이 탄생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역할이다. 전생의 주인공이 죄를 짓고 갈 곳을 몰라 할 때 전생의 주인공을 현생의 부모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주인공이 하늘과의 연관성이 깊음을 직접적으로 등장하여 증명하기도 한다. <유충렬전>의 남악산 신령이나 <용문전>의 천축사 세존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전생의 주인공들이 죄를 짓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할 때 등장하여 현세의 부모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유충렬이 태어난 직후 나타난 선녀는 현세의 부모에게 과실 세 개를 전하며 유충렬이 하늘의 사람임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신성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이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오국왕에 의해 납치된 황후 일행을 구하러 갈 때 잠시 쉬고 있던 유충렬 앞에 선녀가 나타나 “지금 황후 티후 티자 호국의 잡피가셔 동문 티도 상의 원갓 형별 갓초오고 자식을 직축호야 검술을 히롱호니 황후의 귀훈

명이 경각 잇난지라 장군은 엇지 급흐물 모르고 빗비 가지 안이흐난잇가<sup>31)</sup>” 라며 재촉함으로써 유충렬은 급히 황후를 구하여 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소대성전>에서는 호왕에게 속아 장안으로 향하던 소대성은 그 음모를 눈치채고 다시 명나라 대진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공중에서 “턴의 명이 시각에 잇스니 빨리 황강으로 가라<sup>32)</sup>” 는 목소리를 듣고 천자를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영웅에게 천자, 가족 등의 위험을 알려서 구출하도록 인도하여 공을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며 신물을 제공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노승이나 도사 등의 모습으로 <옥주호연> · <장백전> · <장경전> · <유충렬전> · <현수문전> · <용문전> · <황운전> 등에서는 도사, <김홍전>에서는 신령, <소대성전> · <장풍운전> 등에서는 노승의 모습으로 등장한다.<sup>33)</sup> 이들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부분에 등장하여 기능한다.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역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는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어 주로 주인공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표출시키는 역할이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주인공의 잠재적

31) 「유충렬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권2. 솔터, 1992. 364~365쪽.

32) 「소대성전」, 같은 책 권4. 427쪽.

33) 안기수, 앞의 책. 240쪽.

능력을 증명한다면 ‘후견형’ 조력자는 그러한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조력자의 역할은 매우 밀착되어 진행된다.

다른 하나는 신물을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이다. <소대성전>에서는 보검 · 보신갑 · 청용마를, <조용전>에서는 삼척신검 · 갑주 · 보검을, <유충렬전>에서는 장성검 · 천사마 · 갑주 · 신화경을, <김홍전>에서는 청창검 · 자운갑 · 구슬을, <장백전>에서는 용천검 · 옥구슬 등의 신물을 영웅은 조력자를 통해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신물은 <동명왕신화>에서의 고각이 변한 형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몽이 고각을 확보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지상계에 정착했듯이 조력자가 전달한 신물도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임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 · 확장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영웅의 능력 확장과 신물 전달이라는 역할을 통해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범인에 가까웠던 주인공에게 ‘영웅’이라는 존재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서사의 흐름까지도 전환하게 된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나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와는 달리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작품마다 역할 비중이 다양하여 서사를 풍부하게 만든다. 주인공을 영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조력만 시행하기도 하고 군담에 채등장하여 주인공을 조력하기도 하며 아예 출생부터 관여하여 조력하기도 한다. 즉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와 주인공 사이의 관계 밀착도와 빈도에 따라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월적 조력자들은 주로 천상계의 힘과 관련된 조력

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조력자 등장시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①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②
조력자 역할	고귀한 출생 잠재 능력 증명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줌		잠재 능력 표출 신물 제공	영웅성 발휘 기회 제공

[표2]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른 '초월적' 조력자의 등장시점 및 역할

초월적 조력자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을 영웅답게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인공의 고귀한 출생과 잠재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주인공의 신성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으며 잠재된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을 전달함으로써 영웅성을 완성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더 영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월적 조력자는 작품 내에서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34)</sup>

34) 안기수는 이러한 구원자의 등장은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이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전해주는 변신의 주체이며, 신화와는 달리 생래적 능력을 상실한 주인공의 후천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수동적 주체'로서 작품 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초월적 조력자가 스스로 천상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세상을 개혁하거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뒤에서 주인공을 조력하는 역할만 하므로 이에 대해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드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므로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안기수, 앞의 책. 408쪽.)

## 2. 세속적 조력자 유형

세속적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지상계에 있으며 지상계의 힘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영웅성을 확립시키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재상, 승상, 장군 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세속적 조력자의 역할은 초월적 조력자처럼 천상계의 능력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직접 구출하거나 현실에서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상계의 힘을 통해서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한다. 세속적 조력자 또한 초월적 조력자 못지않게 그 역할에 따라 등장하는 시점이나 방법이 다양하며 서사에서의 비중도 작지 않다. 세속적 조력자 역시 ‘구출형’, ‘매개형’, ‘후견형’으로 세분된다.

### 1)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직접 구출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주로 재상, 승상 등 벼슬을 하거나 물러나온 관리로 등장하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부분에 등장한다.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는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구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주로 조실부모하고 유리결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인공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로 떠돌게 된다. 이때 주인공이 영웅이 될 존재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구출하

여 양육하는 존재가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인 것이다. <유충렬전>의 강희주, <소대성전>의 이승상, <장경전>의 소성운 목사, <장풍운전>의 이문정이 바로 그들이다. 이처럼 주인공들은 주로 유리결식하다가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에 의해 구출을 받게 되고 영웅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공이 조실부모하여 유리결식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실부모하여 유리결식하지 않는다면 주인공을 구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용문전>의 경우 주인공이 조실부모하지도 유리결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유충렬전>의 유충렬은 조실부모하고 유리결식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인 강희주에 의해 구출되어 양육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는 조실부모하여 유리결식한다는 조건과 함께 등장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는 주인공을 구출한 후에 자신의 딸과 주인공을 결연시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관계는 이후 서사 진행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충렬전>에서 강희주 집안과의 결연은 강희주가 정한담에 의해 유배당하여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 유충렬의 복수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한담과의 대결에 필연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서사 구조에 더 큰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작품의 서사 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소대성전>의 경우는 또 다르다. 소대성은 부모가 병들어 죽은 후 유리결식하게 되었을 때 이승상에 의해 구출된다. 하지만 이승상조차 세상을 떠나면서 소대성과의 결연은 성사되지

못한다. 대신 이승상은 죽음 이후에 재등장하여 소대성에게 신물인 갑주를 전하며 딸의 안위를 부탁한다. 이처럼 주인공과 조력자의 관계 형성이 차이를 보이면서 작품마다 서사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역시 영웅의 단순한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인 영웅의 행위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사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2)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장군, 장수 등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부분에 등장한다.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는 주로 주인공이 참전하도록 이끌고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옥주호연>의 왕정빈이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왕정빈은 <옥주호연>의 주인공들과 수학하는 과정에서 만나 선후배의 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주인공들보다 먼저 서사 전면에서 등장하여 천자와 주인공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에게 과업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용문전>의 설영두와 노왕도 마찬가지다. 명국의 장수 설영두와 노왕은 용문이 호국의 장수로 있어 서로 대치상황이 되었을 때 연화선생의 편지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결국 명국으로 용문을 데려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한다. 이렇듯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는 군담의 서사 내에 존재

하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최후의 공적을 세우도록 일조하는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와는 달리 군담의 서사 밖에 존재하는 주인공을 군담의 서사로 이끌어 내고 주인공과 함께 군담 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인공의 과업성취를 조력한다.

### 3)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는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완비되도록 이끄는 존재를 의미한다. 단 신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노승이나 도사 등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부분에 등장한다.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는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능력을 고양시키지만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처럼 주인공인 영웅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신물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와 관련 깊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영웅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를 거쳤을 경우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등장하여 주인공인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도 제공하지만 그 단계가 소거된 경우에는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가 등장하여 현실적 능력만을 부각시킨다. 이 경우 신물 또한 제공되지 않는데 설사 신물이 개입된다 해도 신이한 능력은 배제된 채 영웅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데만 활용된다.

<옥주호연>의 주인공들은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로부터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가 등장하며 이 조력자에게 ‘비밀흔 병셔와 신기흔 무예’를 전수받으나 신물은 역시 개

입하지 않는다. 반면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에 의해 잠재된 능력이 증명되었으므로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인 노승에 의해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고 그 능력을 발산시킬 신물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주인공에게 부여된 능력에 따라 조력자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용문전>은 주인공 용문에게 신이한 잠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력자부터 신물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신물은 말만 신물일 뿐 이 신물에 의해 용문의 능력이 발휘되거나 군담에서 활용되지는 않고 단지 전쟁 무기로 등장할 뿐이다. 이처럼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보다 자체 능력이나 역할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주인공 영웅의 신이한 잠재 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속적 조력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조력자 등장시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조력자 역할			위기에서 직접 구출	현실적 능력 표출	영웅성 발휘 기회 제공

[표3]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른 ‘세속적’ 조력자의 등장시점 및 역할

세속적 조력자는 비록 신이한 능력은 없으나 현실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개연성을 확립시키고 서사를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초월적 조력자가 주인공의 신이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력이었다면

세속적 조력자는 주인공의 현실적인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중간적 조력자 유형

중간적 조력자란 그 근원의 힘이 지상계에 있으면서 천상적 이미지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주인공의 조상이거나 직계 가족으로 등장한다. 중간적 조력자는 주인공의 미래를 암시하거나 위협을 예고하는 존재로서 주인공이 유기되어 죽을 고비를 맞았을 때 등장하여 주인공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간적 조력자의 등장 시점이나 방식이 작품마다 비슷하게 그려져 다른 조력자 유형과 구별된다. 유형의 성격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 역할이나 기능도 복잡하지 않다.

#### 1)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란 그 근원의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적 이미지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주로 조상이나 친족 등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부분에 등장한다.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의 역할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꿈속에 나타나 위협에 대비하게 한다. <유충렬전>에서는 정한담의 모함을 받은 부친 유심이 유배를 가게 되고 유충렬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또다시 정한담의 모략에 의해 두 모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한 노인이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이날 밤 삼경의 디변이 잇슬 거스니 이 부치를 가졌다가 화광이 이러나거든 부치를 흔들면서 후원 단장 밋턱 은신히엿다가 충열만 다리고 인적이 쓴친 후의 남천을 바리보고 갓업시 도망흐라 만일 그럿치 안이흐면 옥황게서 아달 화광중의 고힌이 되리다<sup>35)</sup>” 라고 위험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때의 노인이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유충렬 가문의 선조로 추측할 수 있다. <조웅전>에서는 조웅이 두병의 죄상을 경화문에 쓰고 돌아온 날 밤 왕부인의 꿈에 홀연히 승상이 나타나 “디 회 당두흐엿거늘 무슴 즈을 집히 드럿노 날이 밧그면 멸문지화를 당흐리라 으즈를 다리고 급히 남으로 도망흐면 즈연 구흐리라.”<sup>36)</sup>라고 고지하여 줌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도망갈 수 있게 하였다. 이때 꿈속에서 위험을 고지한 인물이 바로 죽은 조웅의 아버지로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이다. 이처럼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는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간적 조력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조력자 등장시점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조력자 역할		앞날이나 위험고지		

[표4]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른 ‘중간적’ 조력자의 등장시점 및 역할

35) 「조웅전」, 같은 책 권3. 80쪽.

36) 「유충렬전」, 339쪽.

Ⅱ장에서 영웅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조력자를 총망라하여 1차 단계에서는 조력자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천상계(초월적), 지상계(세속적), 중간계(중간적)로 분류하였다. 2차 단계에서는 각 조력자가 영웅의 일생 어느 시점에서 작용하고 역할 진행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현시형, 매개형, 구출형, 후견형, 예언형의 형태로 세분하여 각 조력자의 등장시점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조력자의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주인공인 영웅 중심의 서사 분석 관점에서 벗어나 자칫 부수적인 인물로만 취급될 수 있는 조력자를 전면에 세웠다는 것이다. 둘째 조력자를 중심으로 한 서사 분석 또한 주인공 못지않게 영웅의 일생구조와 밀접하게 대응된다는 것이다. 셋째 조력자를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하더라도 영웅소설을 읽는데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 Ⅲ.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 유형

Ⅲ장에서는 각 개별 작품을 통해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즉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적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인 <홍길동전>,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모두 소거되고 지상계의 힘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작품인 <용문전>,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능동적이지 못하고 천상계의 지배를 받아 수동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인 <유충렬전>을 통해 조력자가 주인공과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유형과 역할이 어떻게 다양화되는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1. <홍길동전>의 조력자

<홍길동전>은 <동명왕신화>와 유기적 연관성이 깊어 신화적 흔적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다. 홍길동의 삶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 영웅적 서사골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다만 본고는 조력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므로 II장에서 분류한 조력자의 유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홍길동전>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 ①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로 홍판서가 청룡의 꿈을 얻고 태어난다.

⇒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청룡

- ②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천대를 받고 초란의 시기를 받는다.

- ③ 길동은 스스로 무예와 주역을 익힌다.

⇒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 없음

- ④ 길동은 초란이 무너, 관상녀와 짜고 자객 특채를 보내 자신을 죽이려하자 자객과 관상녀를 죽인다.

⇒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 없음

---

37)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홍길동전」은 연세대 소장본인 경판 30장본이며 김현양 교주본을 활용하도록 한다. (김현양 옮김,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⑤ 길동은 집을 떠나 도적 소굴로 들어가 천근 돌을 들어 던지고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다.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 없음

⑥ 길동은 해인사와 함경감영을 탈취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한다.

⑦ 길동은 병조판서를 요구하며 관군과 대결하다가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조선을 떠난다.

⑧ 길동은 벼 일천 석과 삼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경 땅 제도로 들어가 농업에 힘쓰고 군법을 정비한다.

⑨ 길동은 망당산에 들어가 괴물을 처치하고 백룡과 조천의 딸을 구하고 혼인을 한다.

⑩ 길동은 율도국을 정벌하고 율도국의 왕이 된다.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없음

⑪ 길동은 70세가 되어 백발노인에 의해 두 왕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다.

이를 바탕으로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서사단락 ① :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청룡)
- 서사단락 ③ :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없음
- 서사단락 ④ :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없음
- 서사단락 ⑤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없음
- 서사단락 ⑩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없음

<홍길동전>에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청룡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조력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서사단락 ③에서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재 능력을 획득하며 서사단락 ④의 위기상황에서도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의 도움이 아니라 이미 홍길동에게 내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또한 서사단락 ⑤의 유리결식 과정에서도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의 개입없이 거처를 확정하고 행위의 목적을 설정한다. 서사단락 ⑩의 울도국 정벌 또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왕위를 획득한다. 이처럼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청룡의 등장을 제외하면 이후 서사는 모두 홍길동 자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며 진행된다.

##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의 신이한 잠재 능력과 고귀한 혈통을 증명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청룡’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에 등장한다.

<동명왕신화>에서 주몽은 이미 천부지모형이라는 부모의 가계를 통해 고귀한 혈통을 증명 받았지만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가계를 통한 혈통 증명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홍길동의 고귀한 혈통은 주몽처럼 현세의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기 위해 서사는 태몽이라는 장치를 활용한다.

다음은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가 태몽을 꾸는 장면이다.

선시(先時)의 공(公)이 길동을 나흘 썩의 일몽(一夢)을 어드니, 문득 뇌정벽벽(雷霆霹靂)이 진동(震動)하며 청룡(靑龍)이 슈염(鬚髯)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라 씨다르니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심중(心中)의 덕희(大喜)하여 식각(失覺)되되, ‘너 이제 룡몽(龍夢)을 어더시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나흐리라’ 38)

‘청룡’은 홍길동의 전생이면서<sup>39)</sup> 동시에 현세의 홍길동 신분이 고귀한 혈통임을 증명하는 존재이다. 홍길동의 현세 부모가 천상계와 관련 없는 지상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몽을 통해서 홍길동이 고귀한 혈통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고귀한 혈통을 증명했던 신화 방식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때 조동일은 청룡이 홍길동의 영웅다운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만 한다고 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주인공인 영웅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영웅이라는 상징성을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 홍길동의 능력이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사에 나타나는 홍길동의 신이한 능력 발휘에 대한 개연성은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홍길동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로 하여금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도록 하여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영웅의 신이한 잠재 능력까지도 증명함

38) 「홍길동전」, 143쪽.

39)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생의 홍길동은 현세의 홍길동과 다른 세계에 속한 자로써 다른 인물로 보아 조력자로 설정하였다.

40) 조동일, 앞의 책. 307쪽.

으로써 이후 홍길동이 세계와 맞서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능력의 근원을 드러내도록 한다. 따라서 ‘청룡’은 홍길동이 영웅임을 상징하고 홍길동에게 내재된 능력을 증명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길동전>에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를 제외하고는 홍길동이 어떤 위험이나 고난에 처해도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력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서사단락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력자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서사단락 ③에 등장해야 하는 조력자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이다. 이 조력자의 역할은 주인공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동명왕신화>에서 주몽이 능력을 자력으로 발휘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나면서부터 영웅인 홍길동과 주몽은 영웅성을 이미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웅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력도, 능력을 확장시키는 신물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sup>41)</sup>

서사단락 ④에 등장해야 하는 조력자는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이다. 이 조력자의 역할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꿈속에 나타나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은 자신을 죽이려는 초란의 계략을 스스로 알아챈다. 까마귀가 세 번 울고 가는 것을 듣고 괴이하게 여긴 홍길동이 팔괘를 벌여 점을 친 후 초란의 계략을 알게 되고 도술을 부려 자객을 제거한 후 초란과 함께 계략을 꾸민 관상녀까지 제거하게 된다.

서사단락 ⑤에 등장해야 하는 조력자는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이다.

---

41) 임치균은 동명왕이나 홍길동은 나면서부터 영웅성을 구비해 개발할 필요가 없으나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영웅성이 잠재되어 있어 후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임치균, 앞의 책, 62쪽.)

이 조력자의 역할은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구출하는 것이다. 홍길동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스스로를 구해내고 부모의 공간인 집에서 이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검증받아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여타의 주인공과 다른 능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서사단락 ⑩에 등장해야 하는 조력자는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이다. 이 조력자의 역할은 현실에서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up>42)</sup> 그런데 홍길동은 율도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스스로 율도국의 왕이 된다. 이것은 군담에 참여하는 목적에 따른 차이이다. 즉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기존의 세계에 포함되어 그 세계의 지배자인 천자를 구하기 위하여 군담에 참여한다. 따라서 천자를 위해 공을 세움으로써 이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홍길동은 기존의 세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천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을 세우는 과정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크게 두 지점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는 주인공이 탄생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군담 과정에 관여하여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 중 <홍길동전>에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율도국 정벌 과정인 군담에서 등장하므로 후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조력자 유형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①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②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홍길동전>	청룡	×	×	×	×	×	×	×

【표5】 <홍길동전>의 조력자 유형

<홍길동전>은 신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작품으로, 주인공 홍길동은 동명왕과 같이 내재된 능력을 통해 자력으로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다. 즉 홍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한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며 능동적으로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조력자 또한 이에 걸맞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력자의 등장 빈도와 능력 수준은 주인공 영웅의 능력 정도 및 수준과 관련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홍길동전> 이후 수많은 영웅서사에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계기마다 등장하여 영웅의 출생과 과업 성취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신화성을 도구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 2. <유충렬전>의 조력자

<유충렬전>과 <홍길동전>에는 모두 군담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충렬과 홍길동은 각각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이 다르다. 홍길동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한 공간에서

왕이 되는 주몽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반면 유충렬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천자가 위기에 처하자 왕을 구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력자 유형이 주인공의 능력과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

조력자의 유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충렬전>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3)</sup>

- ① 유충렬은 남악산 신령의 인도로 정언주부 유심의 아들로 태어난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청룡을 차지한 선관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남악산 신령

- ②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유충렬의 탄생을 돕는다.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선녀

- ② 유충렬의 부친 유심은 정한담과 최일귀의 참소로 유배를 가고 정한담은 옥관도사의 말을 듣고 모자까지 죽이려 한다.

- ③ 유충렬의 어머니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위험을 고지해주자 이에 유충렬과 함께 도망하나 회수에서 유충렬은 물에 던져지고 어머니는 사공에게 끌려간다.

⇒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 노인

43) 「유충렬전」, 335~377쪽.

(「유충렬전」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 중 서사단락 ④~⑤에 해당하는 조력자는 유충렬 어머니를 조력하는 자로서 유충렬을 조력하는 것이 아니므로 3장에서는 제외하고 4장에서 다루고자한다. 주인공도 아닌 유충렬 어머니를 조력하는 조력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사장면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볼 것이다.)

④ 유충렬의 어머니는 잡혀간 곳에서 옥함을 발견하고 감추어 도망친 곳에서 다시 위험에 처하자 한 늙은이가 나타나 위험을 고지해 주고 용왕 장녀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 노인, 용왕 장녀**

⑤ 유충렬의 어머니는 전날 나타난 노인이 다시 나타나 유심의 종숙모 집인 이처사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거처하게 된다.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 노인**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 이처사**

⑥ 유충렬은 남경장사치들에게 구조되어 유리걸식하게 된다.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 남경장사치들**

⑦ 다시 유리걸식하던 유충렬은 강희주에 의해 구출되고 강희주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는다.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 강희주**

⑧ 강희주가 상소했다가 정한담의 계략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자 유충렬은 다시 유리걸식하게 된다.

⑨ 유충렬은 서해 광덕산 백용사에서 노승을 만나 병법과 병서, 도술을 익힌다.

⇒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 노승**

⑩ 정한담과 최일귀가 반역하자 천자가 위기에 빠진다. 위기상황을 감지한 노승이 유충렬에게 신물을 주어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⑪ 유충렬은 자결하려던 천자를 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대원수로 활

약한다. 사로잡힌 황후와 태후를 구한다.

- ⑫ 위기에 빠진 천자를 구하고 정한담은 사로잡아 반란을 막아낸다.
- ⑬ 또다시 호국에 사로잡힌 황후, 태자, 태후를 구하러 가던 중 선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출하여 돌아온다.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선녀

- ⑭ 유충렬은 정한담과 최일귀를 장안 시에서 베어 효수하고 삼족을 멸한다.
- ⑮ 유충렬은 모친을 만나고 강소저와 재회하여 위국공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

이를 바탕으로 <유충렬전>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사단락 ① :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선관)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남악산 신령)
- 서사단락 ②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선녀)
- 서사단락 ③ :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노인)
- 서사단락 ⑥~⑦ :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남경장사치들, 강희주)
- 서사단락 ⑨ :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노승)
- 서사단락 ⑬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선녀)

<유충렬전>은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력자가 등장한다. <유충렬전>에 등장하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따라 주인공 영웅의 행적을

따르면 여지없이 조력자도 함께 등장함을 알 수 있다.

###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의 신이한 잠재 능력과 고귀한 혈통을 증명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청룡을 차지한 선관’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에 등장한다.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태몽을 통해 유충렬의 고귀한 혈통이 증명된다. 다음은 유충렬의 어머니 부인 장씨의 태몽 장면이다.

빌기를 다흔 후의 만심고딕하던 차의 일일운 혼숨을 어드니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농하고 일원선관이 청용을 타고 너려와 말흐되 나는 청용을 차지한 선관이더니 의성이 무도흔 고로 상제게 알외되 의성을 취직흐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너셔니 의성이 글노 흠심흐야 빅옥누 잔척시의 의성과 락전흔 후로 상제 전의 득죄흐야 인간의 너치시미 갈바를 모로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 덕으로 지시흐기로 왓사오니 부인은 익홀흐읍소셔 하고 타고 온 청용을 오운간의 방송흐며 왓 일후 풍진중의 너를 다시 차질리라 하고 부인 품의 달여들거늘 놀너 씨다르니 일장춘몽 황홀하다.<sup>44)</sup>

청룡을 차지한 선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생의 유충렬’은 태몽에서 자신의 내력을 부인 장씨에게 술회한다. 본인이 천상계의 선관이었는

---

44) 「유충렬전」, 336쪽.

데 의성이 무도하여 상제께 아뢰어 귀양을 보냈더니 이에 앙심을 품은 의성과 백옥루 잔치 때 대전한 죄로 인간 세상에 내쳐졌다는 것이다. 이에 갈 곳을 몰라 하던 차에 남악산 신령이 부인 장씨에게로 인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결국 유충렬의 전생 신분이 고귀한 혈통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귀한 혈통이 태몽을 통해 증명된다는 점에서 <유충렬전>과 <홍길동전>은 차이가 없으나 <유충렬전>의 태몽이 좀 더 확장되어 나타난다. <홍길동전>에서는 청룡이 품안으로 달려드는 장면으로써 상징화되어 있지만 <유충렬전>에서는 전생의 유충렬이 등장하여 자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장면을 통해 출생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홍길동의 경우 자신의 영웅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태몽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영웅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유충렬의 경우 자신의 영웅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근거를 태몽으로써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길동전>에 비해 <유충렬전>의 태몽이 확장된 것은 홍길동에 비해 유충렬의 능력은 신이함이 어느 정도 소거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러다보니 유충렬의 능력도 조력자의 개입을 통해서 발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존재이자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선녀, 남악산 신령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에 등장한다. ‘전생의 유충렬’은 어머니 장씨의 태몽에서 ‘상제 전의 득죄하여 인간 의 너치시미 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 덕으로 지시헝기로 왔사오니<sup>45)</sup>’라며 오게 된 사연을 밝히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남악산 신령’이 바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이다. 남악산 신령은 전생의 유충렬을 현세의 부모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유충렬이 탄생한 직후 선녀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일원선녀 오운중의 너려와 부인 압피 궤좌하여 백옥상의 뇌인 과실을 부인에게 주며 헝난 마리 소녀난 천상 선녀옴더니 금일 상제 분부헝시되 자미원 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의 환싱헝여스니 네 밧비 내려가 산모를 구완헝고 유아를 잘 거두라 헝시기로 백옥병의 향탕수를 부어 동자를 시치시면 백병이 소멸헝고 유리티의 잇난 과실 산모가 잡수시면 명이 장싱불사헝오리다.<sup>46)</sup>

유충렬이 탄생하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백옥병의 향탕수와 과실 세 개를 전해주며 자신은 하늘의 선녀로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아 내려왔다는 내력을 부인에게 전한다. 이때 등장하는 ‘선녀’가 또다른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이다. 선녀는 유충렬이 하늘과 관련이 깊은 인물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남악산 신령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45) 「유충렬전」, 336쪽.

46) 「유충렬전」, 336쪽.

‘남악산 신령’ 과 ‘선녀’ 는 앞서 등장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중 장치이다. 즉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태몽이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주인공의 영웅성을 암시했다면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에서의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그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조력자를 통해 확보한 주인공의 영웅성은 오히려 홍길동에 비해 영웅의 신이성이 축소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천상계의 관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이다. 이 조력자는 ‘선녀’ 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에 등장한다. 유충렬은 정한담을 사로잡아 천자에게 바친 후 황후와 태후, 태자를 구하기 위해 도성을 떠났다가 잠시 쉬고 있던 차에 선녀를 만난다. 선녀는 이미 유충렬이 탄생할 때 등장해 부인 장씨에게 향탕수와 과일 세 개를 전했던 조력자이다. 이번에도 과일 두 개를 전하며 ‘지금 황후 티후 티자 호국의 잡혀가서 동문 덕도상의 원갓 형별 갓초오고 자각을 지축하야 검술을 히롱하니 황후의 귀훈명이 경각 잇난지라 장군은 엇지 급흐물 모르고 빗비 가지 안이흐난잇가’ 라고 재촉하여 유충렬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한다. 만약 유충렬이 조금만 더 지체를 했다면 황후 등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유충렬이 천상계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충렬의 영웅성을 강조한다.

### 3)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며 신물을 제공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노승’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에 등장한다.

앞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유충렬의 고귀한 혈통과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했다면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그러한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을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조력은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적강하여 그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노승이 유충렬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과정이다.

이후로난 노승과 혼가지로 병서도 잠심히고 불경도 확논흐니라 ... 기이흔 술법을 가르치고 천지일월 성신이며 천흐명산 신령더리 모도 다 흡역흐니 그 지도와 영민흐물 누리셔 당흐리요 주야로 공부흐더라 ... 노승이 웃고 벽장을 열고 옥함을 너여 노으며 ... 갑주 혼 벌과 장검 혼나 칙 혼 권이 드럿거늘 ... 신화경을 폐여노코 칼 씨난 법을 보니 갑주를 입은 후의 신화경 일편을 보고 천상 디장성을 세 번 보거드면 살린 칼이 절노 폐여 변화무궁할지라 ... 용마 업서썩니 장군이 무용지지라 혼디 노승이 답 왈 ... 송임촌 동장자의게 막기고 와썩니 그곳슬 차자가 그 말을 어든 후의 중노의 지체 말고 급피 황성의 득달흐와 지금 천자의 목숨이 경각의 잇사오니 급히 가서 구완하라.<sup>47)</sup>

노승은 유충렬에게 병서와 불경은 물론 기이한 술법을 가르침으로써 유충렬의 신이한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을 제공함으로써 유충렬의 영웅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때 유충렬은 철저히 천상계의 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후 군담에서 유충렬이 노승에게 받은 신물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설정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유충렬전>에서의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주인공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고 신물을 제공하여 영웅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이면서 동시에 유충렬이 천상계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주체임을 부각시키는 역할이기도 하다.

다음은 유충렬과 정한담의 대결장면이다.

한담이 분로하야 응성출마 나오거날 원수 한담을 마자 쓰올시 칼노 치 거디면 반 흡의 죽을 거시로디 살이고 잡고자 하야 장성검 노피 들어 정 한담을 치라더니 한담은 간디업고 편편체운 이러나며 원수의 장성검의 검광이 업셔지고 폐엇던 칼이 도로 살리거늘 원수 디경하야 급피 불너와 신화경을 맞비 폐여 일편을 외인 후의 장성검을 세 번 치며 풍뵝을 맞비 불너 체운을 썩러바리고 안순풍이지조화를 부쳐 적진을 살피보니 한담이 변신하야 체운의 쓰이여 십척 장검 번더기며 원수를 찌로거늘 원수 그제야 씨닷고 왈 한담은 천신이라 산 칙로 잡부려 하다가는 도로여 환을 당 하리라.<sup>48)</sup>

유충렬은 정한담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지만 정한담의 조화에 장성검이 그 능력을 상실하자 당황한다. 이후 유충렬은 신화경을

---

47) 「유충렬전」, 349쪽, 353쪽.

48) 「유충렬전」, 356쪽.

급히 펴서 주문을 외운 후 다시 맞서지만 정한담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깨닫는다. 이때 유충렬은 장성검을 사용하는 능력을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신화경을 통해서만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홍길동이 천상계의 힘을 내재화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천상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영웅인 반면 유충렬은 천상계의 힘을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천상계에 귀속된 수동적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 4)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직접 구출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남경장사치들과 강희주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에 등장한다.

유충렬은 어머니와 함께 정한담의 모략을 피해 도망치던 도중 사공에게 속아 유충렬은 회수에 던져지고 어머니는 사공에게 납치를 당한다. 이때 회수에 던져졌던 유충렬을 구출해 주는 이들이 바로 ‘남경장사치들’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유충렬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까지만 데려다준 후 돌아가 버린다. 따라서 남경장사치들은 위험에서 직접 구출해준다는 점에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다시 유충렬을 유기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다. 이후 유충렬은 유리걸식하는 과정에서 강희주를 만나 완벽하게 구출된다. 이때 ‘강희주’는 남경장사치들과는 달리 온전한 형태의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이다.

다음은 유충렬이 강희주와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다.

맛참 본부의 갖다가 회로의 우편 주점의서 자더니 비몽간의 오식구름  
이 명나수의 어리엿는디 청룡이 물 속의 색지려 하며 흥날을 흥야 무  
수이 통곡하며 백사장의 비회흥거늘 너렴의 괴히야 날식기를 지달이  
더니 계명성이 나며 날리 장차 발거늘 명나수의 밧비 오니 과연 엇더흥  
동자 물가의 안자 울거늘 급히 달여드리 그 아히 손을 잡고 회사정의  
올나와 즈세이 무려 왈 ... 유주부는 일국의 충신이라 동조의 벼슬하다  
가 나는 년만흥기로 고흥으로 도라왔더니 유주부 이런 줄을 몽중으나  
싱각흥여쓰랴 의외라 왕사는 물론흥고 니를 쓰라가자.49)

강희주는 청룡이 하늘을 향하여 무수히 통곡하며 백사장을 배회하는  
꿈을 꾸게 되고 마음이 심란하여 떡라수에 나왔다가 유충렬을 구출함으  
로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가 된다. 이후 강희주는 유충렬과 자신의  
딸을 결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유충렬과 정한담의 대결에서 강희주 유배시 정한담에 대한 유충렬의 복  
수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대립에 필연성을 부여해준다.

이처럼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는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적  
으로 구출하여 미숙한 주인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은  
주人公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 잠시 동안 숨을 고르는 잠룡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

49) 「유충렬전」, 336쪽.

## 5)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란 그 근원의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적 이미지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노인’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부분에 등장한다.

다음은 정한담이 꾸민 계략에 의해 유충렬과 장부인이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다.

이씨의 장부인이 유주부를 이별하고 충열을 다리고 혼숨으로 세월을 보너더니 이날 밤 삼경의 호련이 곤하여 침석의 조으더니 엇더흔 일노인이 흥선 일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을 주며 왈 이날 밤 삼경의 덕변이 잇슬 거스니 이 부치를 가졌다가 화광이 이러나거든 부치를 흔들면서 후원 단장 밋티 은신히엿다가 충열만 다리고 인적이 쓴친 후의 남천을 바리보고 갓업시 도망하라 만일 그러치 안이하면 옥황게서 아달 화광중의 고훈이 되리다 하고 문득 간디업거늘 놀너 씨다르니 남가일몽이라.<sup>50)</sup>

정한담은 유심을 유배 보낸 후 유충렬까지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자 장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위기에 처했음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 신물인 부채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는 천상계의 힘을 통해 주인공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는 주로 주인공과 관련된 선조이거나 친족인 경우가 많다. <유충렬전>에서 등장한 노인 또

50) <유충렬전>, 339쪽.

한 유충렬 집안의 선조로 예상된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며 다른 조력자에 비해 그 역할이 크지는 않다.

지금까지 <유충렬전>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①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②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유충렬전>	선관	남악산 신령, 선녀	노인	노승	×	남경 장사치들, 강희주	선녀	×

【표6】 <유충렬전>의 조력자 유형

<유충렬전>에는 거의 모든 조력자가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 조력자는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와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뿐이다. 그러나 이 조력자들은 각각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와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로 등장하므로 사실상 모든 조력자 유형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홍길동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를 제외하고 어떤 조력자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유충렬전>에서는 초월적 조력자의 활약이 눈에 띈다. 그리고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처럼 조력자의 성격이 <홍길동전>과 다른 이유는 홍길동과는 다르게 유충렬이 신이한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곁으

로 드러나지 않는 영웅성을 표출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천상계와의 관련성을 부각시켜야 했고 그 결과 초월적 조력자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면 천상계의 영향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영웅성을 획득하는 유충렬을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과 관련해 볼 수 있다. 즉 위기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패배 의식이 기저에 깔리면서 그것을 낭만적으로 극복해보고자 했던 당대인들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중간적 조력자가 등장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신이나 현실적 조력자 말고도 또 다른 조력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가족 제도에 대한 끈끈한 믿음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용문전>의 조력자

<용문전>은 <소대성전>의 인기에 편승한 작품으로 철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간된 대중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모두 소거된 상태로 앞서 다뤘던 <홍길동전>이나 <유충렬전>과는 또 다른 조력자 유형이 등장한다. 특히 <유충렬전>이 천상계와의 관련성을 두고 진행된 작품이라면 <용문전>은 천상계와의 관련성이 소거되고 지상계와의 관련성 안에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이다.

조력자의 유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용문전>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1)</sup>

---

51) <용문전>, 같은책 권2. 265~301쪽.

① 용문은 천축사 세존의 인도로 용훈의 아들로 태어난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 천상 삼시 삼천 조인 차지한 신장

⇒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 천축사 세존

② 연화선생이 오달유의 도움을 받아 용문을 찾아내고 용문의 부모에게 용문을 달라고 청하여 허락을 받아 연화산으로 데려와 가르친다.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 연화선생

⇒

③ 연화선생에게 수학을 마친 용문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다.

④ 강가를 배회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에게 적토마를 얻고 적토마를 타고 달리다 도착한 곳에서 동자에게 갑주와 투구, 용천검을 얻는다.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 어떤 사람, 동자

⇒

⑤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나 부모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⑥ 호왕은 천관 도사가 용문을 추천하자 용문을 데려와 전쟁에 참여시킨다.

⑦ 한편 노왕에게 청룡사 노승이 등장하여 용문을 추천한다.(이때 노왕은 소대성이다.)

⑧ 연화선생이 노왕과 더불어 명국에 가담하여 호국과 대적한다.

⑨ 호왕이 대업을 이룰 상이 아님을 알고 용문이 고민할 때 설영두가 나타나 연화선생의 편지를 전하며 용문을 설득하여 명국으로 데려가고 설영두와 노왕의 설득으로 명국의 대원수로 활약한다.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 설영두, 노왕

⇒

⑩ 용문이 계략을 통해 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호왕을 효시한다.

⑪ 용문이 호왕을 도왔던 천관도사를 잡았으나 하늘에서 선관이 등장

하여 죄를 용서할 것을 청하고 천관도사는 천관 산중으로 들어간다.

⑫ 노왕의 딸 계춘이 용문과의 혼인을 추진하고 노왕이 용문의 의사를 물은 뒤 혼인을 치른다.

⑬ 용문의 부친은 호왕에 즉위하고 용문은 일국 병마도총독 겸 대사마 대장군에 걸령후가 되어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를 바탕으로 <용문전>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사단락 ① :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신장)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천축사 세존)
- 서사단락 ② :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연화선생)
- 서사단락 ④ :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어떤 사람, 동자)
- 서사단락 ⑨ :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설영두, 노왕)

<용문전>은 <유충렬전> 못지않게 다양한 조력자가 등장하지만 조력자의 유형이 다르다. <유충렬전>에서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담당하던 능력 표출과 신물 제공의 역할을 <용문전>에서는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와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분담하고 있다. 또한 <유충렬전>에서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역할만 담당했다면 <용문전>에서의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는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군담에 직접 참여하여 용문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대한 공헌을 한다. 또한 <유충렬전>에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가 유충렬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는 역할이었다면 <용문전>의 세속

적 ‘매개형’ 조력자는 용문을 군담에 참여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업을 달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유충렬전>에 비해 <용문전>의 조력자는 천상계의 힘을 빌린 조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현실적인 조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그 비중이나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1)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의 신이한 잠재 능력과 고귀한 혈통을 증명해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천상 삼시 삼천 조인 차지한 신장’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에 등장한다.

다음은 용문의 어머니 부인 관씨가 낳 태몽 장면이다.

일일은 부인 관씨 일몽을 어든이 동희로서 동즈즈 일 인이 올라와 부인씨 세 번 절하고 엿즈오디 소즈는 천상 슴십스천도인도 츠지흐읍는 신장이읍던이 옥황의 명을 밧즈와 '홍허국 틱즈을 벼히라' 흐교흐시미 왕환의 시가 밧지 못흐다 흐시고 득죄흐여 세상의 너치시미 갈 바을 아지 못흐읍더니 마춤 천축스 세존계읍서 부인계 의탁흐라 지시흐오미 왓스오니 부인은 어엿비 예기소서 흐거늘 부인이 반기 여겨 품의 안다가 씨달으니 남가일몽니라.<sup>52)</sup>

---

52) 「용문전」, 283쪽.

<유충렬전>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얻지 못한 용문의 부모가 기사치성을 드러 용문을 얻는다. 홍길동이나 유충렬과 마찬가지로 용문도 현세의 부모로부터 혈통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몽을 통해 고귀한 혈통을 증명된다.

그러나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에서는 세 작품 모두 의미가 다르다. <홍길동전>과 <유충렬전>은 태몽에 의해 주인공인 영웅의 잠재 능력이 증명되지만 <용문전>의 용문은 그렇지 못하다. 단지 영웅성만을 상징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 대신 용문의 영웅성은 이후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에 의해 증명된다. 홍길동은 이미 타고난 영웅성 때문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없었으나 유충렬은 이 조력자에 의해 잠재 능력이 표출되고 신물을 제공받아 영웅성을 발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용문전>에 등장하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는 신물만 제공하는 역할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전달된 신물도 천상계의 힘이 사라지고 지상계의 무구와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용문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를 등장시켜 용문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만 이 역시 지상계의 능력과 관련된 조력으로 제한된다. 조력의 성격이 신이함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군담 서사에서도 도술 대결 장면이 삭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용문전>은 용문의 능력에 따라 조력자 또한 그에 맞는 조력자로 속성과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문전>에서의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홍길동전>이나 <유충렬전>과는 다르게 영웅이라는 상징성만 드러내는 단순한 역할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 2)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존재이자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두 가지 역할 중 먼저 하늘과 땅의 존재를 이어주는 조력자는 천축사 세존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인 출생’ 부분에 등장한다. 부인 관씨가 낀 태몽에서 전생의 용문은 ‘득죄 하여 세상의 넉치시미 갈 바을 아지 못흐옵더니 마춤 천축스 세존계옵서 부인계 의탁하라 지시호오미 왔’<sup>53)</sup>다고 하였다. 이는 천축사 세존이 전생의 용문을 현세의 부모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에서 영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조력자이다. 보통 이 역할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부분에 등장하는데 <용문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유충렬전>과 변별되는 부분이다. 즉 유충렬은 전쟁에 참여한 이후 공을 세우는 과정에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의 조력을 통해 공을 세우지만 용문은 스스로 계략을 짜기도 하고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인 연화선생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오로지 계략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즉 유충렬은 천상계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므로 공을 세우는 과정 또한 천상계의 개입을 받지만 용문은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혹은 주변 지상계에 속한 인물들과의 협공을 통해 공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용문전>은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부분에서 <유충렬전>처럼 초

---

53) 「용문전」, 283쪽.

월적 ‘매개형’ 조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용문전>에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전생의 용문을 현세의 부모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담당함으로써 영웅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천상계와의 인연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3)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현실에서 영웅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설영두’, ‘노왕’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부분에 등장한다.

다음은 설영두와 노왕이 용문을 설득하는 장면이다.

천형으로 친필을 맞자와보니 흥중이 황홀호오며 쏘흔 형을 만나보오  
니 선싱을 뵈은 듯흔지라 그러나 ... 진퇴유곡이라 잇씩을 바리고 심슨  
궁곡의 농부 되야 세상을 몰음미 울토다 혼디 설영두 피석 디 왈 우리  
어진 명제의 덕택이 스희에 덤퍼시며 노왕 쇼디성은 만고영웅이요 디명  
충신이라 ... 형이 비록 호국을 도와 일흠을 만세에 전코져 하나 우물의  
든 고기라 우리 중국은 지방이 팔만여 리요 성중의 갑옷 입은 장슈 십  
만이요 군병이 빅만니요 날너 장슈 니만여 원이니 감히 디적헝기 어려  
운지라 엇지 호국이 외람헝여 중국을 침범헝리요 ... 명국의 도라와 선  
싱전의 십 연 그린던 정을 풀고 부모게 영화 뵈음을 집피 싱각헝라 혼  
디 용문이 이윅키 싱각다가 설영두의 손을 잡고 왈 형의 말슴을 듯스오  
니 명국의 도라가 선싱게 디죄홀연이와 ... 선싱 전의 뵈읍고 즉시 산중

의 드러가 초목과 갖치 늘글지라 ... 노왕과 설영두 이 말을 듯고 반가  
오미 칭양업서 기겨을 갖초와 빅 이에 나가 영접홀시 ... 술을 권하야  
취토록 질거하더니 선싱이 다시 용문을 보고 왈 ... 성군을 섬겨 스직을  
맞들 거시여늘 그디 초야의 농부 되기을 엇지 즈칭하논요 노인이 십 연  
교훈를 속절업시 바리러 하니 그 임으로 홀언이와 나는 알 비 안이라  
하고 장티로 드러가거늘 노왕이 친이 술을 부어 용문을 권하야 왈 장군  
의 승을 보니 반다시 디장의 기상이라 ... 연화선싱은 비록 세상의 낯시  
나 근본 옥경선관이요 그디로 더부려 스제지의가 중하니 장군은 다시  
싱각하소서 용문이 고기을 슈기고 싱각다가 눈물을 흘니고 즉시 선싱전  
의 나아가 투고을 벗고 장하의 쏴어 엇즈요티<sup>54)</sup>

용문은 이미 호왕을 도와 호국의 장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으나 호국의  
왕과 서선우의 아들이 대업을 이룰 상이 아님을 알고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설영두가 등장하여 연화선생의 편지를 용문에게 전달하며 회유함으로  
써 결국 명국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용문은 호국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안 연화선생은 대노하게 된다. 이때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왕이다. 용문은 노왕의 설득으로 마음을 고쳐  
먹고 연화선생에게 사죄한 뒤 명국의 장수로서 활약하게 된다.

이처럼 설영두와 노왕은 용문이 명국의 장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용문은 이에 앞서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로  
부터 제공받은 선물인 석함에 ‘명국 디스마 디장군 용문은 친집기턱하  
라’ 는 문구를 보게 된다. 이 구절은 결국 용문이 명국의 장수로 활약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이다. 그러나 <용문전>은 우연성에 의지하여

---

54) 「용문전」, 294~295쪽.

서사를 이끌지 않고 설영두와 노왕이라는 조력자를 통해 현실성을 부여하며 사건 진행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연성이 <용문전>에서는 설영두와 노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필연성으로 바뀌어 전개됨으로써 서사가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용문전>에서는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와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가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하늘과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그 빈자리를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가 채우게 된다. 즉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가 수행하지 못한 역할을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가 이어받아 용문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용문전>이 천상계와의 연관성을 지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4)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란 그 근원적 힘이 천상에 있으며 주인공이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며 신물을 제공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조력자는 ‘어떤 사람’, ‘동자’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부분에 등장한다.

<용문전>에서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잠재 능력 표출과 신물 제공 중 신물 제공만 담당한다.

다음은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신물을 제공하는 장면이다.

용문이 일일은 노중강변의 나아가 명낭흔 달빛슬 썩라 비회허더니 먼  
 덕 셔 크게 불너 왈 너 말이 스나와 너 즈식을 물어 쥬기고 강을 건네  
 스니 그 말을 즈바쥬면 은혜을 갑푸리라 허거날 용문이 그 소리를 듯  
 고 도라보니 과연 말이 강변의 셔스되 놓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갖  
 고 몸이 불빛 갓터니 진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깃거허거늘 그 슝  
 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의계 디리러 왔는이다 이 말리 능히 운무를 쏘  
 로며 흥번 치치면 능히말니하고 흥번 술리를 흥즉 톱산과 허희가 뒤놓  
 는 듯하니 맛당히 장군의 직조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맞치며 문득 간  
 디업거늘 심중의 크게 깃거 즉시 말게 올라 시험홀시 적토마 흥번 소  
 릅허며 네 굽을 놀닌이 썰의기 슬과 나는 제비라도 밋지 못홀네라 흥  
 고디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의 흥 동즈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의 청용  
 포을 입고 암상으로 내려와 읍허여 왈 소즈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맞스와 전장기계를 장군의겨 전허는이다 츠후의 은혜을 잊지 마르소서  
 하고 문득 간디업는지라.<sup>55)</sup>

용문은 연화선생에게 수학한 후 집으로 돌아와 강변을 배회하던 중 만  
 난 어떤 사람과 동자에게 적토마와 무구가 들어있는 석함을 얻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어떤 사람’ 과 ‘동자’ 가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로서  
 이들은 신물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그러나 용문은 신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사전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  
 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역시 그 능력  
 을 표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물은 능력이 없는 용문에게는  
 단순한 무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전쟁에서도

---

55) 「용문전」, 267쪽.

신물을 이용한 도술 대결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용문이 영웅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치로만 활용될 뿐이다. 이것은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와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인공의 능력에 따라 조력자의 역할 또한 변이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된다.

## 5)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는 그 근원적 힘이 지상에 있으면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완비되도록 이끄는 존재를 의미한다. 단 신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 조력자는 ‘연화선생’의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부분에 등장한다.

다음은 오달유라는 사람이 연화선생을 찾아가 용문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일일은 도인이 천기를 보다가 덕명이 호국의 망케 되어시뵈 즈탄 왈 호왕이 천시를 모르고 천위를 창시홀여 호건이와 호국 쌍의 두우 견역 성이 빗최엇시니 기특흔 영웅이 나도다 호고 즉시 강변으로 가더니 호스름이 도인을 보고 ... 너의 성명은 오달유라 호읍건이와 천기를 잠간 슬퍼보오니 북방의 빗는 별이 빗최여겨늘 일정 영웅이 나도다 호읍고 그고덕 다들나보니 여나무 살 된 아히드리 모리로 성을 쓰코 성 안의 흔 아히 홀노 안져 즈작진퇴호거늘 보니 그 아히 얼굴의 만인 덕적홀 풍도 잇스오나 감히 울러러 슈작을 못 호여습닐이다 도스 왈 아히 어너고덕 잇던요 들유 답 왈 강가의 잇더이다 도스 그 말을 듯고 그곳을 층

즈가니<sup>56)</sup>

연화선생은 천기를 보고 영웅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나 혼자 탄식만 하다가 오달유가 용문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비로소 용문을 찾아나서게 된다. 이때 ‘연화선생’이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이다. 그런데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의 능력은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에 비해 신이하지도 강력하지도 않다. 천상계의 힘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연화선생이 천기를 보고 영웅이 탄생했음을 알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용문전>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를 돕는 오달유라는 또다른 조력자를 등장시켜 연화선생이 용문을 찾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용문이 연화선생에게 수학하는 장면이다.

도스 용문을 다리고 연화산의 드러가 천문지리와 육도습약과 황석공의 병법을 풀 연을 가라치니 용문의 장약이 천지간 영웅준걸이라 도스 왈 이제는 술법을 비와스니 족키 덕업을 일울지라 발니 도라가 밋는 지도을 세승의 베풀고 어진 성주를 만나 웅장흔 일흠을 천츄의 유전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홀진디 네의 선싱을 용납지 못하게 말나 혼디 용문이 두번 절하고 엇즈오디 소즈 풀 연을 선싱 문흐의 머무러 놉푼 지도을 비와쓰오니 엇지 선싱의 교훈을 일분이느 어기릿가 흐고 흐직을 알온디 도스 왈 부디 댘흔 썩을 일치 말느 흐시더라<sup>57)</sup>

---

56) 「용문전」, 283~284쪽.

57) 「용문전」, 284쪽.

연화선생은 용문을 데려가 천문지리와 육도삼락, 황석고의 병법을 팔년 동안 가르치는데 이것은 신이한 능력을 표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수행을 이끌었을 뿐이다. 또한 신물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래 신물이란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을 표출시키는 천상계에 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용문과 연화선생은 초월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물을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인 연화선생이 용문을 조력한 후에 서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손자까지 대동하여 군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장면을 눈여겨 볼만하다. 그들은 전쟁 중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용문을 호국에서 명국으로 이동시키는 데 일조하며 용문과 함께 계략 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서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문은 연화선생에게 수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군담 서사에서는 적군에 가담하여 연화선생과 대치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 구성의 다양화는 주인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력자를 통해 보다 용이해지며 변화 가능한 서사 진행으로 소설적 긴장감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용문전>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①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②
<용문전>	신관	천축사 세존	×	어떤 사람, 동자	연화 선생	×	×	설영두, 노왕

[표7] <용문전>의 조력자 유형

<용문전>은 <유충렬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력자 유형이 등장한다. 그러나 <유충렬전>과는 달리 <유충렬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담당했던 역할을 <용문전>에서는 초월적 조력자와 세속적 조력자가 분담함으로써 점차 세속적 조력자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은 <용문전>이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대성이 가졌던 신이한 능력은 소거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고 일부 남아 초월적 조력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즉 초월적 조력자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하고 명목상의 조력자로만 남아 실질적인 조력은 점차 세속적 조력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 작품에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을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및 비정상적 출생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①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②
<홍길동전>	○	×	×	×	×	×	×	×
<유충렬전>	○	○	○	○	×	○	○	×
<용문전>	●	○	×	●	○	×	×	○

[표8]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에 나타난 조력자 유형 비교<sup>58)</sup>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조력자 유형은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이다. 먼저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고귀한 혈통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세 작품 모두 공통되나 신이한 잠재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에서 차이가 난다. <홍길동전>과 <유충렬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고귀한 혈통은 물론 신이한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는 <홍길동전>과 <유충렬전>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이 발휘하는 능력에 대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력자였다면 <유충렬전>에서는 유충렬이 잠재 능력을 증명 받고 이후 그 능력을 표출시킬 또 다른 조력자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조력자였다. 반면 <용문전>은 두 작품과는 달리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고귀한 혈통만 증명하도록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는 주인공이 잠재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 발생하는 조력자 유형 또한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58) 도표 작성시 조력자 유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했을 경우 ○, 조력자 유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축소되었을 경우 ●로 표기하였다.

다. 이처럼 공통된 조력자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작품마다 그 역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인공이 지닌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홍길동은 이미 영웅성을 완비한 상태이며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 발휘에 대한 개연성만 확보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어떤 조력자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유충렬은 영웅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잠재적이기 때문에 홍길동과는 다른 조력자가 등장하며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의 역할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조력자 유형 또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용문은 홍길동이나 유충렬과는 달리 영웅성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력자 유형이 <유충렬전>과 다르게 나타나며 연쇄 반응에 의해 이후 등장하는 조력자 또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조력자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 및 이후 발생하는 조력자 유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유충렬전>과 <용문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력자 유형이다. <유충렬전>은 주로 초월적 조력자가 등장하는 반면 <용문전>은 세속적 조력자가 주로 등장한다. 비록 <용문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유충렬전>에 비해 그 역할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유충렬전>에서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담당했던 역할을 <용문전>에서는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와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가 분담하고 있다. 이것은 <용문전>이 <유충렬전>보다 조력자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유충렬전>과 달리 천상계와의 연관성을 지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의미

IV장에서는 작품마다 조력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서사 구성 방식의 다양화이고 다른 하나는 영웅성 구현 방식의 다양화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조력자의 역할이 다양화된 원인을 찾고 영웅소설에서 조력자가 갖는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1. 서사 구성 방식의 다양화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에서 각각 서사 구성 방식이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출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군담 참여 목적이며, 마지막은 주변인으로 인한 서사 확장이다.

먼저 출가 원인이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입신양명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과 초란의 계략 때문에 집을 나서게 된다. 이는 <동명왕신화>에서 주몽이 대소 등의 계략에 의해 집을 나서게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집안에 그들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며 이들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 상황이 유사하다. 그러나 주인공을 시기한 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반면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정한담의 계략에 의해 아버지가 유배를 당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도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유충렬에게 복수의 대상은 가문을 몰락하게 한 정한담이며

이후 군담으로 서사가 확장되어 정한담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반면 <용문전>에서는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적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집안이 태평한 가운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 따라서 집을 나서는 이유도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한 것일 뿐 타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는 용문이 연화선생에게 수학한 후에 바로 군담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반대로 잠시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홍길동과 용문이 자의에 의한 출가였다면 유충렬은 타의에 의한 출가인 것이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자의로 집을 나섰기 때문에 유리결식 과정에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홍길동 스스로가 도적소굴로 찾아 들어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타의에 의해 집을 나섰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결식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유충렬은 보호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반면 <용문전>에서 용문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해 집을 나선 것이므로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출가 원인은 이야기의 구성을 연쇄적으로 변화시키고 조력자 유형 또한 각 작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한다.

다음은 군담 참여 목적이다. 각 작품별 군담 비중을 살펴보면 <유충렬전>, <용문전>, <홍길동전> 순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출가 원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집을 나섰기 때문에 조정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조정과 융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현실에서는 개인

적인 소원만 성취한 채 세상을 개혁하지 못하고 율도국으로 떠나게 된다. 이는 주몽과도 유사한 방식의 서사이다. 주몽도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착할 수 없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이는 홍길동의 행적과 유사하다. 따라서 홍길동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선책에 해당하는 율도국 정벌은 그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타의에 의해 집을 나서게 되므로 출가의 원인이 되는 정한담에 대한 복수가 주를 이룬다. 게다가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인 강희주까지 정한담에 의해 유배되자 그 복수심은 극대화된다. 따라서 <유충렬전>에서는 유충렬과 정한담의 대결이 주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군담이 확대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용문전>에서 용문은 개인적인 입신양명이 목적이므로 <유충렬전>과 같이 군담장면이 확대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공적을 세워야하고 이를 위해 군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문전>에는 용문과 대적할 원한관계의 적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군이었던 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세계인 명국에서 입신양명을 하게 된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끝내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에 군담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정벌하여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남을 위해 공을 세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천자가 위협에 처하자 천자를 구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유충렬은 천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속한 일원으로서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의 도움은 절실한 상황이며 향후 일행을 구

함으로써 천자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안정된 영웅의 자리를 확보한다. <용문전>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국인 호국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잘못 비취질 경우 용문은 영웅이 아니라 조국을 배신한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문전>에서는 군담장면 못지않게 용문이 호국을 배신하고 명국의 장수로 변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미 호국이 대업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짐작한 용문은 때마침 연화선생의 편지를 받게 되고 설영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호국을 배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된 용문의 내적 갈등이 고스란히 서사 속에 그려지고 있다. 또한 용문이 명국으로 이동한 후에도 연화선생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호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때 용문의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조력자가 바로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로 설영두와 노왕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용문이 명국의 장수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용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이처럼 군담 참여 목적에 따라서도 등장하는 조력자 유형이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으로 인한 서사 확장이다. 먼저 <홍길동전>에서는 전체 서사 진행방식이 홍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하국대적퇴치담<sup>59)</sup>’은 오히려 홍길동이 두 처녀를 구출하는 조력자 역할을

59) <홍길동전>의 원본은 아직 발견된 일이 없고 세부적인 내용과 표현이 조금씩 다른 몇 종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몇몇 단서로 현재 전해지는 <홍길동전>이 후대에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예로 홍길동이 집을 떠날 때 언급되는 장길산은 17세기 말 군도의 대장으로 활약했던 광대 출신의 실존 인물로 허균 시대로부터 한 세기나 지난 뒤의 인물이다. 또한 훈련도감이란 명칭도 등장하는데 훈련도감은 임란 전후 곧 허균 생존 당시에 처음 설치되었기 때문에 세종조로 설정한 배경에서 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동법도 허균 생존 당시 처음으로 경기 지역 일부에서 시험해 본 정도였고 17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

담당하고 있다. 이는 홍길동이 다른 영웅소설 속에 등장하는 조력자의 능력을 흡수하여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홍길동의 영웅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이 조력자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주변인에 대한 서사를 확장하고 있다. <유충렬전>에서는 유충렬의 어머니에 대한 서사가 확장되어 나타난다.<유충렬전>의 서사단락 ④~⑤는 유충렬 어머니를 위한 조력자가 등장한다. 중간적 ‘예언형’ 조력자에 속하는 노인은 서사단락 ③에서는 유충렬 어머니와 유충렬 모두에게 닥친 위험을 고지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지만 서사단락 ④에서는 오로지 유충렬 어머니의 위험을 고지하는 역할이다. 또한 서사단락 ④에서 용왕 장녀가 등장하여 유충렬의 어머니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다시 노인이 등장하여 이처사의 집으로 인도하게 된다. 또한 이처사는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의 종숙모에 해당하는 집안의 사람으로 유충렬 어머니 입장에서는 세속적 ‘구출형’ 조력자가 된다. 이처럼 <유충렬전>에서는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서사가 강화되어 나타난다. <유충렬전>은 주변인에 대한 서사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주변인에 대한 조력자까지도 추가하여 확장시킴으로서 <홍길동전>보다 훨씬 더 풍부한 서사를 형성하여 독자에게 흥미를 제공하였다. <용문전>에서는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에 해당하는 노왕의 이야기를 통해 서사를 확장시키고 있다. <용문전> 자체가 <소대성전>을 기본으로 하여 후속작처럼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소대성을 의미하는 노왕의 존재는 가볍지 않다. 작품 초반에 노왕에 대한 서사가 추가되었고 이

---

행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에 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홍길동전>은 현전 이본이 원작 그대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1. 147쪽) 이에 따라서 전래 민담에 속하는 ‘지하국대적퇴치담’도 개작하는 과정에서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간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를 통해 <용문전>과 <소대성전>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또한 용문이 호국의 장수로 활약할 때 노왕과의 대결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서사 장면 확대는 물론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후 노왕의 딸과 용문이 혼인함으로써 서사는 완벽한 결말 구조를 형성하여 <소대성전>의 후속작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다른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인 설영두를 통해서도 서사는 확장된다. 설영두가 연화선생의 편지를 전하며 용문을 설득하여 명국으로 데려 오는 장면과 명국으로 왔지만 내적 갈등을 하는 용문을 끝내 설득하여 명국 장수로 활약시키는 장면은 작품 내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용문전>은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의 서사를 확장하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구성 방식의 변화는 소설의 상업화와 관련이 깊다. 18세기는 소설이 상업화되어 성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소설의 성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자층 및 독자층의 형성과 출판 및 유통의 유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화폐경제와 상공업의 발달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여성들이 소설의 독자로 대거 등장하면서 평민 남성들과 더불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소설을 쓰는 직업적인 작가가 등장하면서 작자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출판업의 발달, 세책가의 성행, 직업적인 낭독가인 전기수의 출현, 화폐경제의 성장 같은 새로운 현상에 따라 소설이 상품화됨으로써 유통이 활발해져 성행은 더욱 가속화되었다.<sup>60)</sup> 다시 말해 전기수의 출현, 세책가와 방각본업자의 등장은 이미 소설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

60) 김일렬, 앞의 책. 30쪽.

증거물인 셈이다. 이러한 때에 영웅소설 또한 상업화되기 시작했다.<sup>61)</sup> 특히 귀족적 영웅소설이 18세기에 와서 낭독이나 출판을 통해 널리 인기를 모으면서 소설의 상업적 유통을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러한 소설을 귀족뿐만이 아니라 중인, 하층민조차 전기수를 통해 소설의 수용자로 확대됨에 따라 소설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즉 상층 남성 문학으로 시작된 소설이 상층 여성 독자로, 이어서 하층 남성 문학으로 확대되면서 직업적 작가에 의해 대량 창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62)</sup>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설은 점점 상품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고 이는 동일한 즐거리를 반복 사용하거나 기존의 인기 있었던 작품의 속편을 제작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대량 생산하는 양태로 변모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용문전>이다. <용문전>은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소대성전>의 인기에 편승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생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대성전> 말미에 “니 뒤말은 하권 용문전을 사다 보소서.” 라고 명시해 놓은 것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다.<sup>63)</sup> 이처럼 18세기 소설에서부터 시작된 대중 소설의 창작은 19세기부터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여 현재 전해지는 완판 영웅소설들의 판본 대부분이 이때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설의 상업화 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선호되었던 장르가 바로 영웅소설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웅소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슷한 즐거리를 반복하거나 인기 있는 작품에 편승하여 후속편을 제작하는 등 소설이 점차 상품

61) 임성래, 『완판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7쪽.

6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3, 지식산업사, 2001. 520쪽.

63) 신해진, 「완판 38장본 <용문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 vol.7,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124쪽.

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비슷한 줄거리를 반복하거나 후속편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따라서 각 작품마다 서사 구성방식에 변화를 주어 이야기를 확대 생산해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즉 기본 서사는 유사하게 진행되나 출가 이유나 군담 참여 목적, 주변인물에 대한 서사 확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후 진행되는 사건들을 연쇄적으로 변화시켰다. 확대된 서사에서 조력자 또한 그 역할이 증대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조력자의 역할이 다양해질수록 서사는 풍부해지고 사건은 더욱 긴박하게 구성되어 독자를 충족시키는 장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영웅소설의 상품화는 인기 있는 줄거리를 기본으로 하여 서사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 또한 확대되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2. 영웅성 구현 방식의 다양화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은 모두 다른 유형의 조력자가 등장한다. 설사 같은 조력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다르게 진행된다. 이는 주인공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주인공이 가진 영웅성의 종류에 따라서 조력자 유형 또한 변이된다. 홍길동은 영웅성을 이미 완비하여 태어났고 유충렬은 영웅성을 완비하지는 못했지만 잠재적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다. 반면 용문은 잠재 능력조차 소거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영웅성의 차이는 조력자 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 세 작품 모두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등장하나 <홍길동전>에서는 이후 발휘되는 홍길동

의 신이한 능력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할이고 <유충렬전>에서는 잠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이며 <용문전>에서는 단순히 영웅이라는 상징성만을 부여하는 역할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의 역할에 따라 이후 등장하는 조력자의 유형도 연쇄적으로 변화된다. <홍길동전>에서는 개연성을 부가하기 위한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력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유충렬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증명한 잠재 능력을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등장하여 표출시키고 신물을 제공하는 조력을 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담에서 도술 대결을 펼치고 초월적 ‘매개형’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공을 세우는 서사로 이어진다. <용문전>에서는 초월적 ‘현시형’ 조력자가 잠재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후 서사에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가 등장하기는 하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지 못하고 신물만 전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때 신물은 천상계의 능력을 상실하여 지상계의 무구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대신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가 삽입되어 부족한 능력을 지상계의 힘을 활용하여 영웅적 능력을 확장시켜준다.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군담에서 도술장면이 제거되고 세속적 ‘매개형’ 조력자가 등장하여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주인공의 영웅성의 종류에 따라서 이후 등장하는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은 연쇄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영웅성 구현방식의 변화는 근대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과 관련이 깊다. 초기소설은 신화·전설·민담을 개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자립한 후에도 설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sup>64)</sup> 따라서 영웅을 소재로 한 영웅소설에서도 초기에

는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인공이 가진 능력이 신화적 능력과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비현실적인 서사단락은 줄어들고 현실적인 서사단락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영웅소설도 이원적 세계관에서 일원적 세계관으로 변화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천상계와의 연관성도 점차 사라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영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점차 소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 또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 V. 결론

기존 연구에서는 영웅소설의 인물유형을 주로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라는 인물 유형이 세분화되어 연구되지 못한 점으로 인해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조력자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조력자를 대상으로 영웅 서사를 분석해보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조력자가 천상(하늘)의 논리와 지상(땅)의 논리 중 어느 것에 입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초월적 조력자, 세속적 조력자, 중간적 조력자 유형으로 대별하고 조력자가 주인공의 영웅성을 밝혀 드러내는

---

64) 조동일, 앞의 책. 159, 181쪽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현시형, 매개형, 구출형, 후견형, 예언형으로 나뉘어서 살펴보았다. 이때 조력자의 근원이 달라짐에 따라 하위 역할 및 방법의 종류가 동일하게 구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홍길동전> · <유충렬전> · <용문전>에 나타난 실제 조력자를 통해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 비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마지막 4장에서는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의미를 서사구성방식의 다양화와 영웅성 구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조력자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작품에 대입시켜봄으로써 조력자의 유형 및 역할이 다양화된 모습과 이유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비록 모든 영웅소설에 대입시켜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조력자의 의미를 재조명해봄으로써 조력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했던 조력자라는 다양한 성격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영웅소설이 주인공인 영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소설이 아니라 수많은 조력자가 작품에 영향을 주고 서사를 확대시켰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 본고의 논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김현양 옮김, 『홍길동전 · 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1』,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용문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권2, 솔터, 1992.
- <유충렬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권2, 솔터, 1992.
- <조웅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권3, 솔터, 1992.
- <소대성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 권4, 솔터, 1992.

## 2. 단행본

-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반도출판사, 1974.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1.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류준경, 「한국 고전소설의 작품 구성원리」,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6.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6.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 \_\_\_\_\_, 『완관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 임재해, 『민족 신화와 건국 영웅들』, 천재교육, 199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2001.
- \_\_\_\_\_, 『한국소설의 이해』, 지식산업사, 2012.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3. 논문

- 김재용, 「영웅소설의 두 주류와 그 원천」, 『한국언어문학』 Vol.22, 한국언어문학회, 1983
-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Vol.4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 박일용, 「영웅소설 유형 변이의 사회적 의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학회, 1983.
- 서경희, 「<용문전>의 서지와 유통」, 『이화어문논집』 Vol.16, 이화어문학회, 1998.
- 신해진, 「완관 38장본 <용문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 vol.7,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 이윤석, 「<홍길동전> 이본의 성격에 관한 고찰」, 『국문학연구』 Vol.12,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9.
- 이원수, 「<용문전>의 일고찰-조선후기 가치관의 전화과정을 중심으로

로」, 『국어교육연구』 Vol.16, 국어교육학회, 1984.

임치균, 「영웅소설 연구 - 탄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vol.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 ABSTRACT

Hero appeared in the novel acts as a type  
of facilitator

- Centered <honggildongjeon> · <YuChungryuljeon> ·  
<yongmonjeon>

Park Eun-mi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e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tiy

Hero of the novel a classic novel and is a big percentage. Mythical heroes of the lifetime and passed down the type of structure than a typical novel type. Military emerged the hero from the fence I'm easygoing equanimity to the vocal cords are the contents note. These heroes live in the novel of Korea (1592-1598) and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during the turbulent time of the triumph of frustration and failures experienced in response to the desire for grass roots while vicariously. Since then, further developed into the popular fiction novels of commercialization and

majmulrimyeonseo a variety of forms and genres of the readership was the beloved.

Heroes novels the hero is not a hero in the first place is equipped with a look. With the help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ather than hero grow and overcome the crisis. Thus, in the hero's journey as a hero by the incessant providing help on the perimeter, we ' helper '. They make epic hero than hero's progress closely. The hero of the Castle, the heroine rescues the heroine wake up and work, such as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epic composition for each variety,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case can proceed. This helper is an important position within the epic and despite so far could also specifically called the auxiliary figures are broken down into research type is obscured. Focusing on these points here is aimed at the analysis of the epic hero of the helper looking a new aspects framework.

First appeared in the works in order to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uxiliary the auxiliary role and function segmentation. So far, two scenes from the helper function is seen. The first is the protagonist as the hero fell in the former crisis to grow the protagonist to rescue in the form of the auxiliary and the second is to grow as a hero the hero is in the form of foster care helper. Not central to thes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helper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hero. However,

here is focused on the heroes auxiliary helper class. The source of the primary steps in the process where the auxiliary power revealed in the heavenlies (transcendental), But the countervailing (secular), the Middle Division (intermediary). In the second phase, each helper functions and roles of the hero's lifetime at some point responsible for progress, depending on the type, parameter type, rescue, appearing under the tutelage, the Prophet-type in the form of segmentation. Auxiliary hero plays a part in the investigation, not only to be a hero in an ep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is article has been through research interest was only helper auxiliaries, called sharpen acknowledged the character hero epic with a focus on point-of-view helper to understand also meant to prove that.